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유민상 · 신동훈



2021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저 자 유민상, 신동훈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김지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작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임.
-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 사업이 참여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포럼 개최,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임.
- 설문조사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669명에 대한 조사를 웹조사 방식으로 시행하였고, 면접조사는 참여자 13명과 종사자 8명에 대한 면담을 개별면접 및 초점집단면접(FGI)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1)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현황

- 코로나19 전후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구직단념 등 니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음.
-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5,000명을 목표로 하여 4,668명이 지원하였고 3,287명이 승인되었음. 그 결과 14개 운영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764명은 이수, 523명은 중도 탈락 처리되었음. 시범사업은 운영 상 기관별로 신청자 수 중 불승인 수, 중도탈락자 수, 이수자 수의 기관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발생하였음. 2021년 참여자의 2022년 8월 현재 상태 중 취업자 수는 22%, 직업훈련 2%, 일자리 사업 참여 1%인 것으로 나타남.
- 비록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1년 후 변화 중 취업률의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성과평가에서는 취업률과 같은 전통적인 지표를 주된 성과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모집률, 참여자들의 만족도, 중도 탈락률, 수료율 등)와 결과지표로서 경제활동 활성화 평가(취업률, 교육, 훈련 등 참여율)가 복합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2) 설문조사 결과

-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가 취업준비(3.39점) 또는 취업(3.38점) 측면보다 정서적 안정(3.98점)이나 자신에 대한 이해(3.9점)와 같은 심리 정서적 측면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주요 연구결과

-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 초반과 사회 경험이 있는 30대 초반의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특히 사업 참여경로와 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두드러졌음.
- 사후관리에 대한 욕구 수준에 비해 실제 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3.71점)나 사후관리(3.5점)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음.
- 사업 참여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은 사업 참여 이전 비구직 상태였던 청년들이 39.9%로 참여 이전 일을 했던 청년들(30.5%)에 비해 높았음.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사유에서도 몰라서(31.9%)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참여 이전에 일(18.3%) 또는 구직(17.3%) 상태였던 청년들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상이한 특성을 보였음.
- 사업 참여 전후 경제활동 상태는 일(24.96% → 60.54%), 구직활동(36.47% → 19.13%), 비구직(38.57% → 20.33%)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짐. 다만, 니트 상태 지속기간에 대해 비구직 니트 청년은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 중 1명꼴로 높게 나타나 상태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15.8%는 외출을 잘 하지 않지 않는 상태였으며, 특히 비구직 니트 청년의 경우 20% 이상이 외출 빈도가 낮아 사회와 단절될 위험이 높았음.
-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와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참여 허용, 참여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과 같은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참여기간과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되는 입장이 공존했음.

3) 면접조사 결과

- 청년 면담은 사업 참여 이전의 상태, 사업 참여 경험의 특성, 사업 참여의 성과, 개선방안으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첫째, 사업 참여 이전의 상태는 청년들이

주요 연구결과

니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단절되거나 고립되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었음. 둘째, 사업 참여 경험의 특성은 청년들이 처음 접하는 청년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방 밖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청년들은 가볍게 사업에 참여하여 잡생각을 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안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음. 또한 취업에 대한 압박이 없는 것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였음. 셋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를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리하면 마음의 안정과 기분 환기, 활력 부여 및 활성화,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고립의 완화 등이 있었음. 넷째, 개선방안은 상담 전문성 증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취업/진로 서비스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다양화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사후관리 개선, 기간 연장 고려 등이었음.

- 운영기관 종사자 면담은 주로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였고, 실무자의 고용 안정, 사후관리 개선, 서비스 전문성 개선 및 연계 기능 강화, 청년을 기다려주는 프로그램 운영, 신생 기관을 위한 운영 노하우 공유, 강사 인력풀의 공유 등이 있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이 사업은 취업 자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잠시 여유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장점이 있음. 둘째, 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이들을 선별하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선호와 상담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종사자들은 다년차 사업으로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무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 측면 중요한 과제임.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이 연구는 문헌자료,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도출한 연구결과에 대해 청년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 토론을 실시하여 수정·보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1)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activation)에 초점을 둔 성과평가 방안 마련
- 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기간의 연장 및 다년도 운영 설계
- 3)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 4)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실무자 전문성 제고
- 5)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기능 강화 및 니트 청년에 대한 단계적 지원 보장
- 6) 고교-대학과 연계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transition) 지원
- 7) 사업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으로의 연결: 청년정책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 8) 청년들의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지원 기초 프로그램으로의 입지 강화
- 9) 고용/훈련/교육 정보를 통해 참여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10) 기타 (커뮤니티 형성 기능 강화, 예산 사용 및 프로그램에서의 표준화와 자율성의 균형, 지원기관 역량 강화 및 중앙의 서비스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

2021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보고 22-수시01

제Ⅰ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3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 3. 연구방법 5
- 4. 보고서의 구성 6

제Ⅱ장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현황

- 1.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9
- 2.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사업 분석 13

제Ⅲ장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19
- 2. 연구방법 20
- 3. 설문 분석 결과 26
- 4. 요약 및 시사점 76

제Ⅳ장 면접조사 결과

1. 조사개요	81
2. 연구방법	82
3. 면접 분석 결과	85
4. 요약 및 시사점	105

제Ⅴ장 정책 제언

1. 연구요약	109
2. 정책제언	113

참고문헌	119
------------	-----

부 록	123
-----------	-----

표 목차

표 II-1. 취약 청년 대상 사업 성과지표	16
표 III-1.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 기관별 설문참여율	21
표 III-2. 참여자 특성	21
표 III-3. 참여자 설문조사 문항구성	24
표 III-4.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중복응답)	27
표 III-5.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한 달 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비율	28
표 III-6.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한 달 전 구직, 교육, 직업훈련 비율	29
표 III-7-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하기 한 달 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응답의 비율 [계속]	31
표 III-7-2.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하기 한 달 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응답의 비율	32
표 III-8.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움 정도(5점)	34
표 III-9.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시 만족도(5점)	36
표 III-10. 청년도전지원사업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험	37
표 III-1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39
표 III-12.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받은 사후관리 서비스 대한 '경험 있다' 응답의 비율	41
표 III-1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사후관리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필요하다' 응답의 비율	42
표 III-14. 청년도전지원사업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5점)	43
표 III-15.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천 의향	44
표 III-1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	46
표 III-17. 지난 주 구직활동(창업준비포함) 경험	47

표 Ⅲ-18-1.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응답의 비율 [계속]	49
표 Ⅲ-18-2.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응답의 비율 [계속]	50
표 Ⅲ-18-3.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응답의 비율	51
표 Ⅲ-19-1.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하나만 선택) [계속]	53
표 Ⅲ-19-2.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하나만 선택) [계속]	54
표 Ⅲ-19-3.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하나만 선택) ..	55
표 Ⅲ-20.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	56
표 Ⅲ-21-1. 평소 외출 정도 [계속]	58
표 Ⅲ-21-2. 평소 외출 정도	59
표 Ⅲ-22. 현재 상태 지속 기간	60
표 Ⅲ-23. 현재 상태가 된 계기	61
표 Ⅲ-24-1. 진로 효능감 [계속]	62
표 Ⅲ-24-2. 진로 효능감	63
표 Ⅲ-25. 진로 자신감	64
표 Ⅲ-26. 참여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65
표 Ⅲ-27. 사업 참여 이전 상태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	68
표 Ⅲ-2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현재 상태	70
표 Ⅲ-29-1.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타당도(5점) [계속]	74
표 Ⅲ-29-2.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타당도(5점)	75
표 Ⅳ-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82
표 Ⅳ-2.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초점집단면접(FGI) 질문 프레임 ..	83
표 Ⅳ-3. 청년 당사자 응답 특성	84
표 Ⅳ-4.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종사자 응답 특성	84

그림 목차

그림 Ⅰ-1. OECD 국가들의 학력별 니트 청년 비율(2017 혹은 최신자료)	3
그림 Ⅰ-2.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6
그림 Ⅱ-1.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중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모형(안)	10
그림 Ⅱ-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흐름도	11
그림 Ⅱ-3.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통계(승인된 인원 기준)	12
그림 Ⅱ-4.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기관별 참여자 통계	12
그림 Ⅲ-1. 본 조사의 설문조사 방법 도식	19
그림 Ⅲ-2.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	26
그림 Ⅲ-3. 사업참여 전 일을 하지 않고, 교육, 훈련,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30
그림 Ⅲ-4.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의 도움 정도	33
그림 Ⅲ-5.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시 만족도	35
그림 Ⅲ-6.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38
그림 Ⅲ-7.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받은 사후관리 경험과 욕구	40
그림 Ⅲ-8.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천 여부 (귀하께서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다른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45
그림 Ⅲ-9.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천 및 비추천 이유	45
그림 Ⅲ-10. 지난 주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이유 (다중응답)	48
그림 Ⅲ-11. 지난 주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이유 (주된 이유)	52
그림 Ⅲ-12. 외출정도	57
그림 Ⅲ-13. 참여자 경제활동 상태 변화	66
그림 Ⅲ-14. 참여자 경제활동 상태 변화	66
그림 Ⅲ-15. 경제활동 상태의 부정적 변화 참여자의 주된 비구직 사유	67
그림 Ⅲ-16. 사업 참여 이전 상태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69

그림 Ⅲ-17. 사업 참여 이전 상태에 따른 사업 참여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이유	70
그림 Ⅲ-1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현재 상태	71
그림 Ⅲ-19.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 현재 상태 비교	72
그림 Ⅲ-20.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73
그림 V-1.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의 2022년 현재의 상황	111
그림 V-2. 닛트 청년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설계 방안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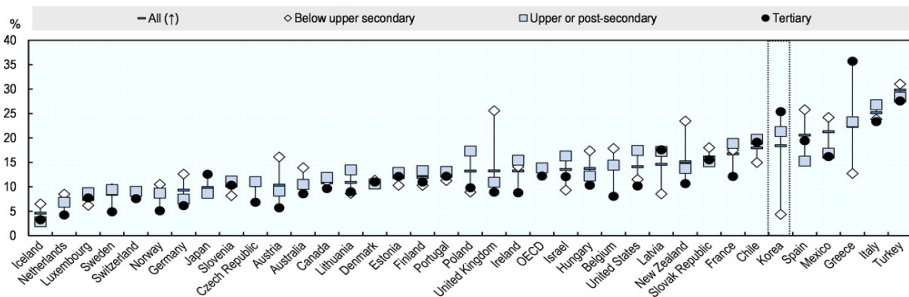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 연구방법
- 4.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배경

이 연구의 목적은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작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 사업이 참여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훈련을 받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니트(N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니트 청년 비율이 높은 편이며, 특히 고학력 니트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그림 I-1 참고).



* 출처: OECD(2019). Investing in Youth: Korea. Figure 1.5에서 발췌

그림 I-1. OECD 국가들의 학력별 니트 청년 비율(2017 혹은 최신자료)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교육 수준은 니트가 될 가능성을 낮춰주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우리나라는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의 니트 비율이 높다.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와 같은 교육, 훈련 위주의 프로그램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또한 갑자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청년 니트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리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화된 니트는 구직에 대한 단념과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유민상, 신동훈, 2021). 지금까지 니트 청년에 대한 정책은 민간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근래에 들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21년 고용노동부가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니트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니트 청년이라는 발굴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대상에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니트 청년에 대한 사업은 기존의 취업 프로그램이 성과지표로 삼았던 취업률 등 양적 지표를 통한 평가가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21년 시행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해 본 사업이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니트 청년 지원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더욱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2년 본 사업으로의 시행을 거쳐, 2023년부터 사업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제안을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수시과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수시과제는 사회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분석을 위한 연구 형태이며 단기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연구는 각 내용에 대해 간결하게 보고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여 실제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 및 면접을 통해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니트 상태에 머물고 있는지 또는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당시 사업 운영 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시행하여 실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니트 상태 청년 및 취약청년 대상 사업으로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포럼 개최, 정책연구실무협의 회 등이다.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기획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행정데이터 활용은 시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보완사항은 정책제언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에 대해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설계와 성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에 추진된 니트 또는 취약 청년 대상 사업 성과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에 대한 추적조사로 설계하여 사업 참여 당시의 상황을 회고적으로 응답하고, 1년 정도 지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면접조사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13명에 대한 개별면접과 사업을 운영한 기관의 관리자 4명 및 실무자 4명 등 8명을 초점집단면접(FGI)과 개별면접 방식을 혼용하여 조사하였다.¹⁾ 넷째, 전문가 자문은 연구의 설계, 설문지 구성, 성과지표 구성 등에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 다섯째, 포럼 개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제14차 청년정책포럼을 통해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고용노동부와

1) 이 연구의 양적연구(설문조사) 및 질적연구(면접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202208-HR-수시-002)을 완료하였다.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각 연구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마지막 장에서 종합하여 제언 작성에 활용하였다.

4.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2장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평가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설문조사의 구성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면접조사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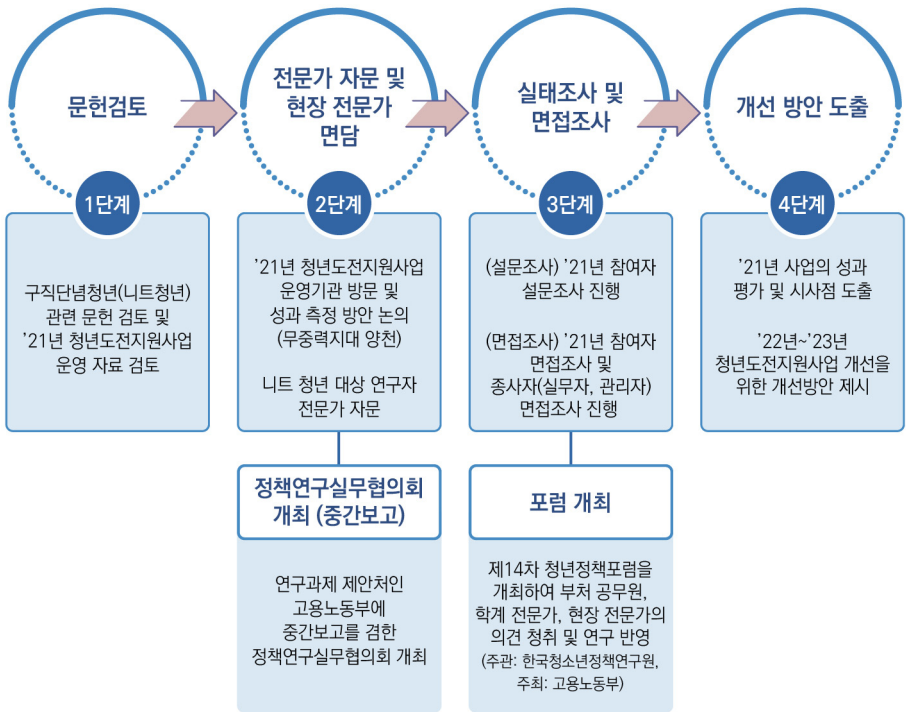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제 II 장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현황

- 1.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2.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사업
분석

1.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²⁾

코로나19 전후로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 대한 사회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니트 상태가 장기화되기 전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집중 지원하여 활성화(activation) 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함으로써 단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사업은 2022년 본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3년에 확대 시행될 계획에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범사업의 참여대상을 ‘구직단념청년’으로 명명하였다. 구직단념청년은 “최근 6개월 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18세~34세 청년”이다. 구직단념청년의 판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보험 이력과 같이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취업 및 직업훈련 기록이 사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가 1차 스크리닝 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청년들의 모집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통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취약층 청년은 30%까지 참여를 허용하였다. 또한, 2021년 7월 발표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 2021a)’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는 ‘고용노동부(2021). 청년도전 지원사업 착수 워크숍 자료집.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STEP 1 참여청년 발굴(5,000명+α) → 상담, 프로그램 참여(2~3개월) * STEP 1, 2에서 중도탈락하는 인원을 감안, STEP 1 참여청년 추가발굴(+α)	STEP 2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5,000명 목표)	STEP 3 일경험 및 취업연계 (5,000명 목표)
자치단체 청년센터(20개소 선정) →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에 초점)	특성에 따라 1유형(청년특례), 2유형(청년 일반)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완주 후 고용까지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구직으로 해소)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수 시 청년에 20만원, 기관에 10만원 지급	(추가상담) 구직단념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추가 상담 제공 (인센티브)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AP 수립 시 기관에 추가 인센티브 10만원 지급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재험형)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프로그램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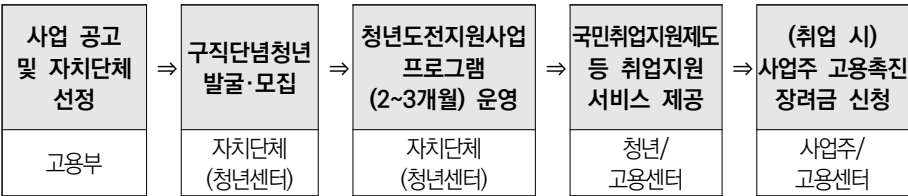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1b.).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그림 II-1.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중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모형(안)

2021년 3월에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목표로 설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상담, 구직으로 해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이수 시 청년에 20만원, 기관에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시 운영기관에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즉, 니트와 같이 활력 수준이 낮은 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독특한 점은 고용노동부가 이미 갖추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와 같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센터(비영리법인·민간기관)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청년센터로의 사업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 청년 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는 본 사업의 운영에서 참여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운영 기관의 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운영기관이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고용노동부(2021). 청년도전 지원사업 착수 워크숍 자료집.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그림 II-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흐름도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화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진철, 이종범, 신수립, 2021). 하지만 2021년 신규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청년센터의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 지자체 자체사업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심리상담 기반으로 개인 특성을 고려한 2~3개월 과정의 모듈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수에 필요한 40시간의 구성은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청년센터의 자원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와 품질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통계를 보면, 5,000명을 목표로 하여 4,668명이 본 사업에 지원을 하였고, 워크넷 고용보험 이력 및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를 통해 최종 3,287명의 사업 참여가 승인되었다. 사업 참여자들은 40시간의 프로그램 중 80% 이상 참여할 경우 이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 2,764명은 이수, 523명은 중도 탈락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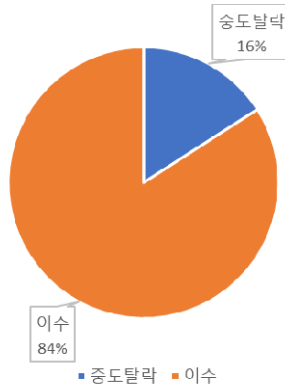


그림 II-3.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통계(승인된 인원 기준)

기관별 통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센터는 규모와 인력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청년센터 별로 상이한 인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림 II-4를 보면 각 기관별로 신청자 수 중 불승인 수, 중도탈락자 수, 이수자 수의 기관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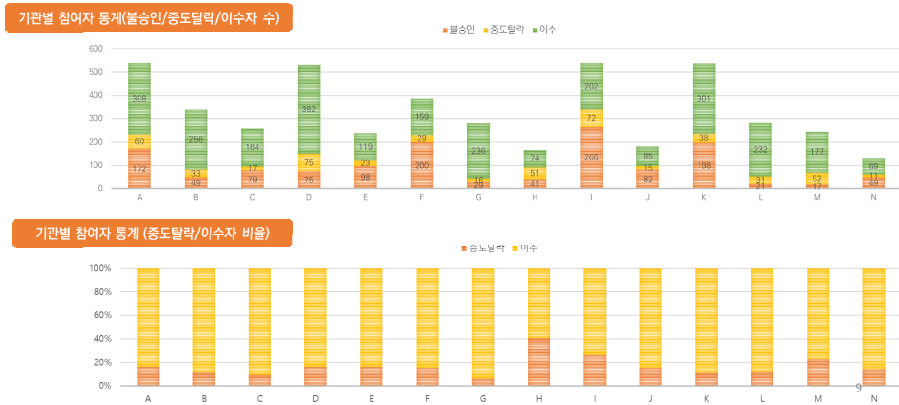


그림 II-4.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기관별 참여자 통계

2.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사업 분석

1) 유사 사업 성과평가 사례 검토 필요성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니트 청년은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집단이며, 국내외에서 이들을 포함하는 몇몇 정책 사업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그 대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대상 발굴이 어렵고, 어렵게 발굴해 사업을 통해 지원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그 효과 역시 객관적 지표로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금세 종료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 청년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추진된 사업을 대략적으로 개괄하고 이들 사업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는지 검토하여 그 방향성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추진하는 설문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정례화 되었을 때 필요한 성과평가를 위해 설정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유사 사업 성과평가 사례

기존 국내에서 추진된 취약 청년 대상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내일이룸학교,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31.6조원의 예산으로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용노동부, 2022a). 사업의 목적이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에 있는 까닭에, 성과평가지표에도 이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참여 만족도, 취약계층 참여율, 반복참여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 알선취업률, 창업률 등으로 성과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다(고재성 외, 2019).

다음으로 내일이룸학교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검정고시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자립장려금 등을 지원함

으로써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는데 목적을 두며, 2022년 기준 12개 훈련기관에서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내일이룸학교 사업 역시 연령 및 환경적인 조건이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로서 모집률, 중도탈락률, 수료율, 취업률을 사용하였다(김기현, 김태성, 배진우, 2018).

마지막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일부로 운영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으로 재개편되어 추진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I 유형에 해당하면서 적극적 구직활동이 인정될 시 지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2b). 이에 대한 성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통계와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사업운영의 결과와 사업효과 영역 등 2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운영 결과는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관리, 구직활동개선, 단기 취창업 효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운영 효과는 고용효과,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재성 외, 2019).

해외에서 추진되는 니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유럽의 청년보장제를 들 수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청년 실업률에 대한 대응으로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직한 지 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층(만 15~24세, 코로나19 이후 만 15~29세로 확대)에게 취업을 위한 훈련, 교육, 또는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국가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평가는 국가단위의 총괄 모니터링 지표, 운영성과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지표, 참여자들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 성과 평가지표를 구성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속 모니터링 지표는 ① 긍정적인 상태(고용, 교육, 훈련), ② 부정적인 상태(실직 또는 비활동 상태), ③ 알 수 없는 상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김기현 외, 2021).

3) 시사점

기존 취약 계층 또는 니트 청년 대상 사업은 노동시장 또는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들을 발굴하여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어, 취업률을 직접적이고 최우선적인 성과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취업률을 넘어선 성과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업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모집률,

참여자들의 만족도, 중도 탈락률, 이수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결과지표로서 취업률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등의 활성화상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 구성의 일부로 취업률로 설정하더라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참여기관이 변화가 쉬운 대상에게 단기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지만,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향후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고려와 협조 하에 방향성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평가(총괄 데이터, aggregate data)로 기관별 데이터(사업의 중도 탈락률, 이수율 등) 및 참여자 데이터(성별/연령별 중도탈락률, 이수율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미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성과평가로 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사후 모니터링도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면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 방안으로, 사업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 회고 및 현재 상태를 보고하는 종단 형태의 설계 추진이 요청되며, 구체적 내용으로 참여 이전 상태, 현재 상태, 변화 상태, 사업 방향 관련 의견(재참여 여부, 사업기간 연장 여부, 개선의견) 등을 포함해 설문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참여 전후 상태,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차이 등으로 인해 부득이 회고적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조사 방식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성과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교적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한 종단 형태의 성과평가 설문조사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 취약 청년 대상 사업 성과지표

사업명	사업 대상	성과지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노인,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퇴직자, 취업취약계층 등	사업 참여 만족도, 취약계층 참여율, 반복참여율, 중도탈락률, 취업률, 고용유지율,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 알선취업률, 창업률 등
내일이룸학교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모집률, 중도탈락률, 수료율, 취업률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사업운영 결과: 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관리, 구직활동개선, 단기 취창업 효과 사업운영 효과: 고용효과, 사회적 자본
청년 보장제 (Youth Guarantee)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코로나 19 이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확대)	국가단위 총괄 모니터링 지표, 운영성과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지표, 참여자들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지표① 긍정적인 상태(고용, 교육, 훈련), ② 부정적인 상태(실직 또는 비활동 상태), ③ 알 수 없는 상태)

*출처: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연구진이 표로 구성하였음.
고용노동부(2022a).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고용노동부(2022b).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고재성 외(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진천: 한국고용정보원.
김기현 외(2018).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외(2021).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제Ⅲ장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 2. 연구방법
- 3. 설문 분석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설문조사 개요

이번 설문조사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당시의 경험과 현재 상태 및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조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여 40시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료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이후 실시되는 회고 방식의 조사다. 즉, 회고 조사를 통한 사후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엄밀한 변화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추적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이 진정 참여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의미가 있었는지를 긴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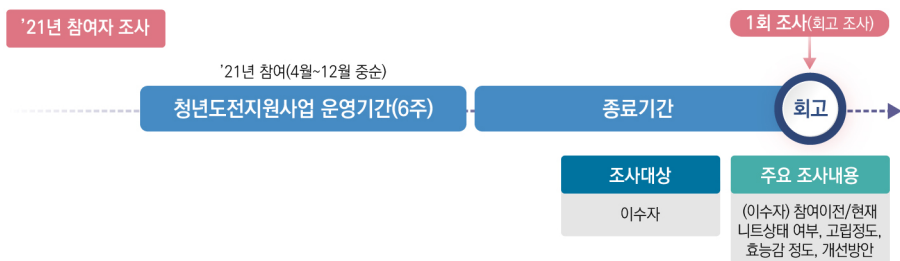


그림 III-1. 본 조사의 설문조사 방법 도식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는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조사(모바일 조사 포함)로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전체 조사 대상인 목표모집단은 지난 2021년 운영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이수를 완료한 약 2,700명의 청년이다. 다만, 사업 참여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경과된 점과 온라인 조사로 실시된다는 점 등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목표모집단의 약 25%에 해당하는 700명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초부터 약 2주간 실시되었으며, 연구참여자는 웹(Web)상 연구 참여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조사기준일(2022년 8월 1일)에 근거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내용은 사업참여 이전상태(참여 경로, 참여 이전 니트상태, 구직단념 이유 등), 사업참여 실태 및 만족도(개인 및 사업 측면 등), 현재 상태(현재 니트상태, 외출 빈도, 사회적 연결망과 지원, 주관적 고립감, 효능감, 삶의 만족도, 사후관리 경험, 필요성, 지원 희망 여부 등), 사업개선 방안(사업 및 프로그램 개선 타당성), 참여자 특성(참여 기관, 연령, 성별, 학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이 구성한 설문지를 조사수행 업체(알앤알컨설팅)가 온라인에 구축하였으며, 해당 설문 참여링크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전달 체계를 통해 배포하였다. 추가로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 중에서도 설문조사 참여링크 발송의 협조가 가능했던 2개 기관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총 14개 운영기관 중 2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으로부터 설문조사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었으며, 해당 기관 사업 이수자 총 2,355명 가운데 28%에 이르는 669명이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표 III-1.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 기관별 설문참여율

운영기관	비율(기관별/전체)	비고
A	0.4%	소규모 참여 기관(이수자 100명 미만)
B	14.1%	
C	14.1%	
D	11.8%	
E	5.8%	소규모 참여 기관(이수자 100명 미만)
F	7.5%	2022년 미참여 기관
G	3.6%	2022년 미참여 기관
H	8.4%	
I	6.3%	소규모 참여 기관(이수자 100명 미만)
J	9.0%	
K	12.1%	
L	7.0%	

*12개 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 2,355명, 설문참여 669명, 조사참여율 28%

표 III-2. 참여자 특성

구분		N	%	구분		N	%
연령	만24세 이하	91	13.6%	만성질환	만성질환 있음	85	12.7%
	만25-29세	372	55.6%		만성질환 없음	519	77.6%
	만30세 이상	206	30.8%		응답거부	65	9.7%
성별	남	174	26.0%	부모와 동거	동거	446	66.7%
	여	495	74.0%		비동거	84	12.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14.1%		독립	139	20.8%
	초대졸	82	12.3%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30.6%
	4년제 대학 졸	460	68.8%		소득 중	299	44.7%
	대학원 졸업	27	4.0%		소득 상	165	24.7%
	잘 모르겠음	6	0.9%	전체		669	100.0%

모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사의 특성상, 특정한 특성을 가진 참여자가 과대 표집 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 현황을 참고하여 성, 연령, 기관별 참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참여 인원을 조정하고자 했다. 각 기관별 운영 규모 및 2022년 사업운영 여부에 따른 지원인력의 차이로 일부 기관별 설문참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웠으나, 한 개의 운영기관(A)을 제외하면 기관별로 최소 20명 이상의 사례를 확보해, 전체 설문참여자 대비 특정 기관의 사례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조사를 완료했다.

(2) 조사내용

이 연구에서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사업참여 전후 상태를 비교하고, 사업참여 경험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참여 이전상태, 사업참여 실태 및 만족도, 현재 상태, 사후관리 및 향후 전망, 사업개선 방안, 참여자 특성 등의 영역을 포함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구성하고 청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전문가 집단에게 문항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는 자문과정을 통해 수정 및 보완되었다. 이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검토 및 승인(202208-HR-수시-002)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① 사업참여 이전 상태

기본적으로 2021년에 진행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간 취업 및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18세~34세 청년”을 참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가 사업참여 이전 교육, 훈련, 구직활동의 경험이 없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례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취약층 청년을 30%까지 참여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참여자의 유형을 세분화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업참여 이전 니트 상태를 묻고, 비구직니트 상태에 해당한다면 그 이유를 추가로 조사하여 참여자별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업 참여 경로를 조사하여 향후 사업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② 사업참여 실태 및 만족도

사업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두 가지 차원(개인 및 사업)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먼저 개인 차원은 참여자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수준으로, 정서적인 안정, 나에 대한 이해, 취업 정보, 청년정책 탐색, 취업 준비, 진로계획 수립, 취업 등 총 7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명칭,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제공 인력, 프로그램, 인센티브,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 사후관리, 사업전반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사업은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때 그 효과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참여 성실도가 떨어지는 참여자에게 사업으로 인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시에 참여자의 참여 적극성은 사업이 얼마만큼 매력적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스로 얼마만큼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측정해 이와 같은 측면을 파악하고자 했다.

③ 현재 상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현재 상태는 사회경제적 지표 및 심리정서적 지표를 통해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및 니트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사업 참여 전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연결망과 지원, 외출수준, 고립감, 자기효능감 및 진로효능감, 삶의 만족도 등은 현재 시점만 측정하므로 사업참여 전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지만,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개인차원에 준 도움 수준과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 운영 기관이 담당해야 할 핵심 역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고, 그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울러 사업 참여 이후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했는지, 그리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지인에게 추천할지 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성과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다.

④ 사업개선방안

사회 및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향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참여기간 연장, 참여기간 선택, 인센티브 규모, 프로그램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재참여 등과 관련한 기존 사업 참여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청되는 사업 대상자의 다각화와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⑤ 참여자 특성

참여자와 관련한 정보는 참여기관, 연령, 성별, 만성질환 여부, 부모동거 여부, 부모 소득 수준, 본인 학력 수준 등을 수집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과 다차원적 특성이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 연구는 기관별 성과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 않으므로, 참여 기관 정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특정 기관의 사례가 과대 대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었다.

표 III-3. 참여자 설문조사 문항구성

구분	지표		출처
사업참여 이전상태	• 참여 경로		이병희 외(2021) 수정
	• (참여이전) 니트상태		유민상 외(발간예정)
	• 구직단념 이유		유민상 외(발간예정)
사업참여 실태 및 만족도	• 개인 측면	• 정서적 안정	연구진 개발
		• 자기이해	연구진 개발
		• 취업정보 찾기	연구진 개발
		• 청년정책 찾기	연구진 개발
		• 채용절차 준비	연구진 개발
		• 진로계획 수립	연구진 개발
		• 취업	연구진 개발
	• 사업 측면	• 사업명칭	연구진 개발
		• 서비스 제공 기관	연구진 개발
		• 서비스 제공 인력	연구진 개발
		• 프로그램	연구진 개발

구분	지표		출처
		• 인센티브	연구진 개발
		•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연구진 개발
		• 사후관리 만족	연구진 개발
		• 전반적 만족도	연구진 개발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도		연구진 개발
현재 상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참여여부	이병희 외(2021)
		• 참여 도움여부	이병희 외(2021)
		• 미참여 이유	이병희 외(2021)
	• (현재) 니트상태		유민상 외(발간예정)
	• 외출		유민상 외(발간예정)
	• 사회적 연결망과 지원		통계청 사회조사
	• 주관적 고립감		Russel(1996)
	• 역량	• 자기효능감	김아영(1997) 수정
		• 진로효능감	Taylor & Betz(1983) 수정
	• 삶의 만족도		유민상 외(발간예정)
	• 사후관리를 받은 적 있는지		연구진 개발
	• 사후관리 필요성		연구진 개발
	• 참여이후 자신감 증진여부		이병희 외(2021)
	• 지인 추천		연구진 개발
사업개선 방안	• 기간 연장 타당성		연구진 개발
	• 기간 선택 타당성		연구진 개발
	• 인센티브 증액 타당성		연구진 개발
	• 프로그램 개선 타당성		연구진 개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타당성		연구진 개발
	• 재참여 타당성		연구진 개발
참여자 특성	• 참여 기관		유민상 외(발간예정)
	• 생년월일 (만 연령변수 생성)		유민상 외(발간예정)
	• 성별		유민상 외(발간예정)
	• 만성질환		유민상 외(발간예정)
	• 부모동거여부		유민상 외(발간예정)
	• 부모 소득 수준		유민상 외(발간예정)
	• 본인 학력수준		유민상 외(발간예정)

3. 설문 분석 결과

설문 분석은 사업 참여 이전 상태, 사업참여 실태 및 사업 만족도, 현재 상태, 사업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등의 순서로 기술하였다.³⁾

1) 참여자의 사업참여 경로 및 이전상태

참여자의 사업참여 이전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경로, 참여 이전 근로, 구직, 교육, 훈련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구직, 교육, 훈련도 받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사업참여 경로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중복응답으로 참여 경로를 응답하게 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정부, 공공기관, 청년센터 등 홈페이지를 보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음’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 사업의 참여대상은 18~34세까지의 청년으로 1987년생부터 2003년생을 포괄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조금씩 다른 특성을 공유하는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 경로 역시 연령집단 별로 차이가 있어 온라인을 통합 유입과 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유입 등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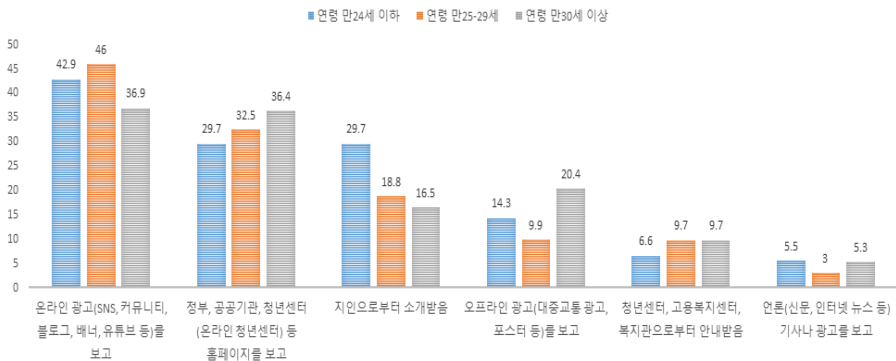


그림 III-2.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

온라인 광고를 통한 유입은 20대에서 40%를 넘겼으나 30대 초반은 36.9%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정부, 공공기관, 청년센터 등 홈페이지를 통한 유입은 20대에

3) 이 연구의 설문지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해 30대 초반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광고 역시 20대에 비해 30대 초반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 세대는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가장 접근성이 좋을 수 있으나, 청년 세대 내에서도 활동성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근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I-4.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중복응답)

단위: %

구분		N	온라인 광고 (SNS, 커뮤니티, 블로그, 배너, 유튜브 등)를 보고	장류, 공공기관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등 홈페이지를 보고	자인으로부터 소개됨	오프라인 광고 (대중교통 광고, 포스터 등)를 보고	청년센터, 고용복지센터, 복지관으로부터 안내됨	언론(신문, 인터넷 뉴스 등) 기사나 광고를 보고	기타
전체		669	42.8	33.3	19.6	13.8	9.3	4.0	1.3
연령	만24세 이하	91	42.9	29.7	29.7	14.3	6.6	5.5	0.0
	만25~29세	372	46.0	32.5	18.8	9.9	9.7	3.0	1.6
	만30세 이상	206	36.9	36.4	16.5	20.4	9.7	5.3	1.5
성별	남	174	35.1	39.7	26.4	15.5	8.6	7.5	0.6
	여	495	45.5	31.1	17.2	13.1	9.5	2.8	1.6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35.3	29.4	18.8	12.9	14.1	5.9	3.5
	만성질환 없음	519	43.7	32.4	20.6	14.6	8.1	4.0	0.8
	응답거부	65	44.6	46.2	12.3	7.7	12.3	1.5	3.1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43.5	32.7	19.5	13.5	9.4	3.8	1.8
	비동거	84	35.7	28.6	21.4	17.9	9.5	6.0	0.0
	독립	139	44.6	38.1	18.7	12.2	8.6	3.6	0.7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41.5	36.6	16.6	10.7	9.3	5.9	2.0
	소득 중	299	43.5	32.4	19.7	13.4	9.7	3.3	0.7
	소득 상	165	43.0	30.9	23.0	18.2	8.5	3.0	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9.4	31.9	20.2	13.8	18.1	6.4	1.1
	초대졸	82	42.7	36.6	17.1	9.8	12.2	0.0	4.9
	4년제 대학 졸	460	44.3	33.0	19.8	13.9	7.4	4.3	0.7
	대학원 졸업	27	22.2	33.3	25.9	25.9	3.7	3.7	3.7
	잘 모르겠음	6	66.7	33.3	0.0	0.0	0.0	0.0	0.0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청년들을 참여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참여하는 비정규, 초단기 근로 형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된다(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참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맞춰 정원의 30% 이내의 인원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반영되어 이번 조사에서도 본 사업에 참여하기 한 달 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청년들의 비율이 25.0%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 및 대학원 졸업 청년들의 경우 사업 참여 전 일을 한 비율이 각각 37.2% 및 37.0%로 비교적 높았다.

표 III-5.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한 달 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비율

단위: %

구분		N	일을 하였음	일을 하지 않았음	계
전체		669	25.0	75.0	100.0
연령	만24세 이하	91	37.4	62.6	100.0
	만25-29세	372	25.0	75.0	100.0
	만30세 이상	206	19.4	80.6	100.0
성별	남	174	23.0	77.0	100.0
	여	495	25.7	74.3	100.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24.7	75.3	100.0
	만성질환 없음	519	25.0	75.0	100.0
	응답거부	65	24.6	75.4	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22.0	78.0	100.0
	비동거	84	31.0	69.0	100.0
	독립	139	30.9	69.1	100.0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26.8	73.2	100.0
	소득 중	299	21.4	78.6	100.0
	소득 상	165	29.1	70.9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7.2	62.8	100.0
	초대졸	82	23.2	76.8	100.0
	4년제 대학 졸	460	22.2	77.8	100.0
	대학원 졸업	27	37.0	63.0	100.0
	잘 모르겠음	6	16.7	83.3	100.0

전체 응답자 669명 중 1시간 이상 일을 한 청년을 제외한 502명에게 본 사업에 참여하기 1달 전 구직, 교육,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502명 중 48.6%는 구직활동을 했다고 응답하였고, 7.2%는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4.2%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6.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한 달 전 구직, 교육, 직업훈련 비율*

단위: %

구분		N	구직활동**	교육**	직업훈련**
전체		502	48.6	7.2	4.2
연령	만24세 이하	57	36.8	21.1	1.8
	만25-29세	279	52.0	6.8	3.9
	만30세 이상	166	47.0	3.0	5.4
성별	남	134	41.8	11.2	6.7
	여	368	51.1	5.7	3.3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64	40.6	10.9	9.4
	만성질환 없음	389	49.1	7.2	3.3
	응답거부	49	55.1	2.0	4.1
부모 동거 여부	동거	348	47.4	5.2	3.4
	비동거	58	56.9	15.5	6.9
	독립	96	47.9	9.4	5.2
소득 수준	소득 하	150	48.7	7.3	4.7
	소득 중	235	50.2	6.4	3.0
	소득 상	117	45.3	8.5	6.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9	40.7	11.9	5.1
	초대졸	63	38.1	7.9	7.9
	4년제 대학 졸	358	52.2	6.1	3.4
	대학원 졸업	17	41.2	11.8	5.9
	잘 모르겠음	5	40.0	0.0	0.0

* 비교: 표 Ⅲ-5 문항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각 활동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으로 '예'에 대한 %만 기재하여 합계가 100이 아님

요컨대 지역 특례로 참여한 청년들의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결과이긴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근본적으로 구직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 있었다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일을 하거나, 민간학원 등의 비공식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더 안정적인 상태로의 변화 동기를 드러내며, 해당 청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고, 교육, 훈련도 하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상태이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전체 669명 중 237명으로 35.4%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으로 하였을 때,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52.3%,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는 49.8%,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는 44.3%,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는 40.5% 등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구직 의욕이 낮은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38.8%, ‘예술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는 25.3%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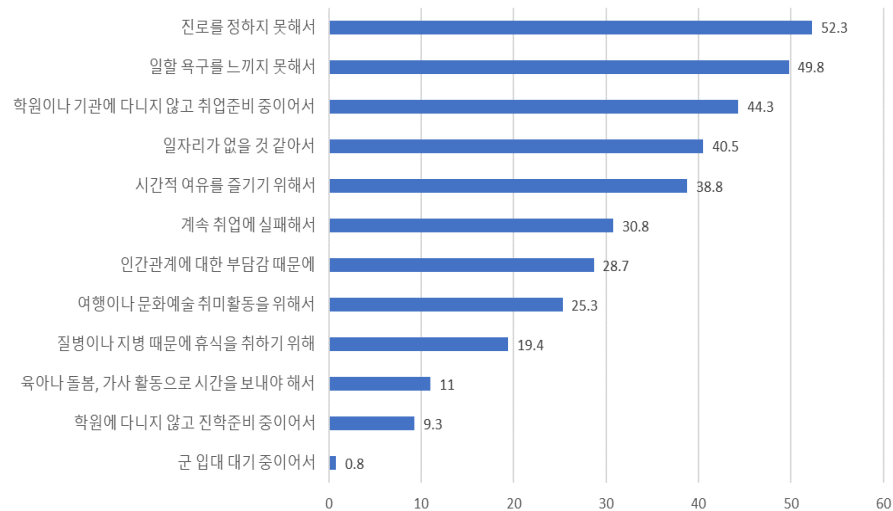


그림 Ⅲ-3. 사업참여 전 일을 하지 않고, 교육, 훈련,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표 Ⅲ-7-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하기 한 달 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응답의 비율* [계속]

단위: %

구분	N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 활동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 준비 중이어서**
전체	237	40.5	49.8	25.3	38.8	11.0	19.4	9.3
연령	만24세 이하	27	33.3	48.1	33.3	48.1	14.8	14.8
	만25-29세	127	40.9	52.0	27.6	42.5	7.9	18.9
	만30세 이상	83	42.2	47.0	19.3	30.1	14.5	21.7
성별	남	71	36.6	50.7	14.1	29.6	7.0	16.9
	여	166	42.2	49.4	30.1	42.8	12.7	20.5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35	40.0	40.0	8.6	17.1	8.6	51.4
	만성질환 없음	182	39.0	50.0	30.2	43.4	11.5	9.9
	응답거부	20	55.0	65.0	10.0	35.0	10.0	35.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174	42.5	50.6	24.7	42.5	7.5	16.7
	비동거	21	38.1	47.6	28.6	33.3	4.8	19.0
	독립	42	33.3	47.6	26.2	26.2	28.6	31.0
소득 수준	소득 하	68	50.0	54.4	14.7	27.9	16.2	30.9
	소득 중	109	36.7	44.0	24.8	40.4	9.2	16.5
	소득 상	60	36.7	55.0	38.3	48.3	8.3	11.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46.7	63.3	23.3	46.7	3.3	30.0
	초대졸	37	48.6	51.4	45.9	54.1	10.8	27.0
	4년제 대학 졸	159	37.7	47.8	22.0	34.0	11.9	13.8
	대학원 졸업	8	37.5	37.5	0.0	25.0	12.5	37.5
	잘 모르겠음	3	33.3	33.3	33.3	66.7	33.3	66.7

* 비교: 표Ⅲ-6 문항에서 모든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각 이유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으로 '예'에 대한 %만 기재하여 합계가 100이 아님

표 Ⅲ-7-2.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하기 한 달 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응답의 비율*

단위: %

구분		N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전체		237	44.3	0.8	30.8	28.7	52.3
연령	만24세 이하	27	51.9	0.0	22.2	25.9	63.0
	만25-29세	127	46.5	0.8	37.0	29.9	58.3
	만30세 이상	83	38.6	1.2	24.1	27.7	39.8
성별	남	71	42.3	0.0	31.0	26.8	42.3
	여	166	45.2	1.2	30.7	29.5	56.6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35	31.4	0.0	28.6	25.7	48.6
	만성질환 없음	182	49.5	1.1	30.2	26.4	50.5
	응답거부	20	20.0	0.0	40.0	55.0	75.0
부모동거 여부	동거	174	46.0	1.1	33.9	31.6	55.7
	비동거	21	57.1	0.0	28.6	28.6	42.9
	독립	42	31.0	0.0	19.0	16.7	42.9
소득수준	소득 하	68	33.8	0.0	29.4	29.4	55.9
	소득 중	109	46.8	0.9	29.4	28.4	51.4
	소득 상	60	51.7	1.7	35.0	28.3	5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16.7	0.0	26.7	40.0	63.3
	초대졸	37	43.2	0.0	40.5	40.5	48.6
	4년제 대학 졸	159	49.7	1.3	28.3	22.6	50.3
	대학원 졸업	8	25.0	0.0	37.5	37.5	50.0
	잘 모르겠음	3	100.0	0.0	66.7	66.7	100.0

* 비교: 표Ⅲ-6 문항에서 모든 문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각 이유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으로 '예'에 대한 %만 기재하여 합계가 100이 아님

2) 사업참여 당시의 상황 및 사업 만족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당시의 상황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업의 도움 정도, 만족도, 사업참여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 사후관리 경험 및 인식, 사업참여 이후 자신감 증진 정도, 사업의 추천 의향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사업의 도움 정도는 정서적인 안정, 나를 이해하는 것, 취업 정보를 찾는 것, 나와 관련된 청년정책을 찾는 것,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준비하는 것,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 취업을 하는 것 등에 대한 도움 정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5점 매우 도움이 되었다)로 측정한 것이다. 응답 결과를 보면, ‘정서적인 안정(3.98점)’, ‘나를 이해하는 것(3.9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취업을 하는 것(3.38점),’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준비하는 것(3.39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별로 도움이 되었다는 점수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 초반과 사회 경험이 있는 30대 초반의 응답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취업과 관련된 도움에서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것은 각 대상들에게 실용적인 지식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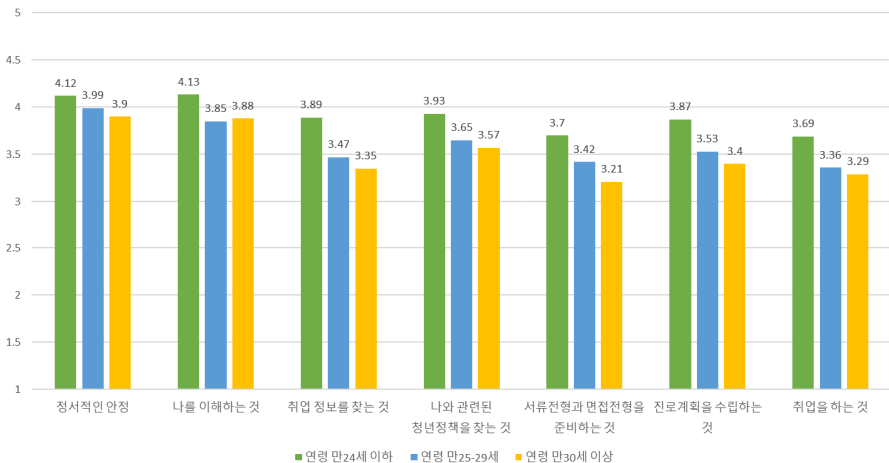


그림 Ⅲ-4.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의 도움 정도

표 III-8.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움 정도(5점*)

단위: 점

구분		N	정서 적인 안정	나를 이해 하는 것	취업 정보를 찾는 것	나와 관련된 청년 정책을 찾는 것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준비 하는 것	진로 계획을 수립 하는 것	취업을 하는 것
전체		669	3.98	3.90	3.49	3.66	3.39	3.54	3.38
연령	만24세 이하	91	4.12	4.13	3.89	3.93	3.70	3.87	3.69
	만25~29세	372	3.99	3.85	3.47	3.65	3.42	3.53	3.36
	만30세 이상	206	3.90	3.88	3.35	3.57	3.21	3.40	3.29
성별	남	174	3.96	3.93	3.53	3.60	3.43	3.52	3.42
	여	495	3.99	3.89	3.47	3.68	3.38	3.54	3.37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3.95	3.89	3.33	3.66	3.12	3.33	3.16
	만성질환 없음	519	3.98	3.90	3.52	3.66	3.45	3.59	3.44
	응답거부	65	4.00	3.92	3.43	3.69	3.34	3.37	3.25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3.98	3.88	3.44	3.64	3.38	3.49	3.32
	비동거	84	3.93	3.87	3.39	3.58	3.36	3.57	3.38
	독립	139	4.01	3.98	3.70	3.77	3.47	3.66	3.60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3.96	3.83	3.35	3.63	3.20	3.44	3.23
	소득 중	299	3.96	3.92	3.50	3.66	3.45	3.54	3.40
	소득 상	165	4.04	3.95	3.64	3.70	3.52	3.65	3.5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78	3.83	3.57	3.71	3.36	3.59	3.38
	초대졸	82	3.99	3.95	3.55	3.61	3.40	3.51	3.46
	4년제 대학 졸	460	4.02	3.90	3.47	3.64	3.40	3.55	3.39
	대학원 졸업	27	4.11	4.00	3.37	4.11	3.41	3.41	3.26
	잘 모르겠음	6	3.50	3.33	3.33	3.33	3.00	2.33	2.50

* 비고: 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도움이 되었다', 5점 '약간 도움이 되었다'로 1점~5점으로 측정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시 만족도를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명칭,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 (상담사, 강사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인센티브 금액(20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종료 후 정보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전체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9점이었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 4.05점,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4.0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3.71점,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3.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종료 후의 서비스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연령집단별로 만족도를 물었을 때 20대에 비해 30대 초반 청년의 만족도가 비교적 일관되게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서비스의 구성과 품질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사회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미흡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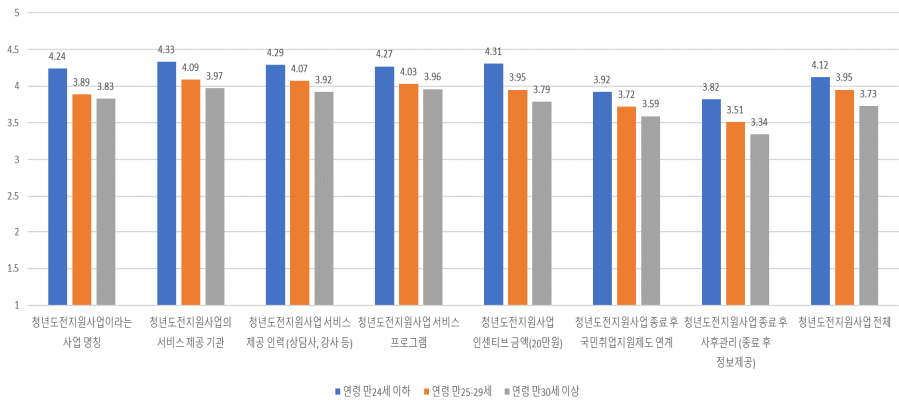


그림 III-5.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시 만족도

표 III-9.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시 만족도(5점)

단위: 점

구분		N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칭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 (상담사, 강사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인센티브 금액(20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종료 후 정보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전체
전체		669	3.92	4.09	4.05	4.04	3.95	3.71	3.50	3.91
연령	만24세 이하	91	4.24	4.33	4.29	4.27	4.31	3.92	3.82	4.12
	만25-29세	372	3.89	4.09	4.07	4.03	3.95	3.72	3.51	3.95
	만30세 이상	206	3.83	3.97	3.92	3.96	3.79	3.59	3.34	3.73
성별	남	174	3.91	3.98	4.06	3.87	3.84	3.72	3.51	3.83
	여	495	3.93	4.12	4.05	4.11	3.98	3.70	3.49	3.93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3.88	4.18	4.15	4.14	4.20	3.89	3.65	3.95
	만성질환 없음	519	3.94	4.08	4.04	4.03	3.93	3.72	3.51	3.92
	응답거부	65	3.86	4.05	4.02	4.06	3.74	3.34	3.20	3.74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3.92	4.09	4.03	4.02	3.93	3.66	3.45	3.87
	비동거	84	3.92	4.05	4.01	4.06	3.90	3.86	3.49	3.88
	독립	139	3.94	4.09	4.14	4.12	4.04	3.78	3.68	4.04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3.88	4.03	3.97	4.00	3.91	3.70	3.40	3.83
	소득 중	299	3.92	4.07	4.07	4.04	3.92	3.72	3.55	3.90
	소득 상	165	3.99	4.19	4.13	4.10	4.05	3.68	3.52	4.0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91	4.04	4.12	4.01	3.82	3.73	3.63	3.95
	초대졸	82	4.07	3.99	4.02	4.01	4.00	3.84	3.51	4.00
	4년제 대학 졸	460	3.90	4.11	4.05	4.08	3.98	3.68	3.48	3.88
	대학원 졸업	27	4.07	4.30	4.07	3.89	3.81	3.89	3.48	4.07
	잘 모르겠음	6	3.17	3.67	3.67	3.17	3.00	3.00	2.83	3.33

* 비고: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만족한다', 5점 '매우 만족한다'로 1점-5점으로 측정됨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사업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 중 36.8%는 참여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57.0%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청년은 6.3%였다.

표 Ⅲ-10. 청년도전지원사업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험

단위: %

구분		N	참여하였음	참여하지 않았음	모르겠음	계
전체		669	36.8	57.0	6.3	100.0
연령	만24세 이하	91	35.2	61.5	3.3	100.0
	만25-29세	372	36.8	55.6	7.5	100.0
	만30세 이상	206	37.4	57.3	5.3	100.0
성별	남	174	36.8	54.6	8.6	100.0
	여	495	36.8	57.8	5.5	100.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41.2	50.6	8.2	100.0
	만성질환 없음	519	36.8	57.4	5.8	100.0
	응답거부	65	30.8	61.5	7.7	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35.9	59.0	5.2	100.0
	비동거	84	42.9	51.2	6.0	100.0
	독립	139	36.0	54.0	10.1	100.0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38.5	56.6	4.9	100.0
	소득 중	299	36.8	56.2	7.0	100.0
	소득 상	165	34.5	58.8	6.7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9.4	54.3	6.4	100.0
	초대졸	82	42.7	48.8	8.5	100.0
	4년제 대학 졸	460	35.7	59.3	5.0	100.0
	대학원 졸업	27	33.3	59.3	7.4	100.0
	잘 모르겠음	6	16.7	16.7	66.7	100.0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몰라서(22.8%)’와 ‘신청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서(22.8%)’라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20.5%)’였다. ‘몰라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서’의 응답이 높은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신청 자격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 간 연계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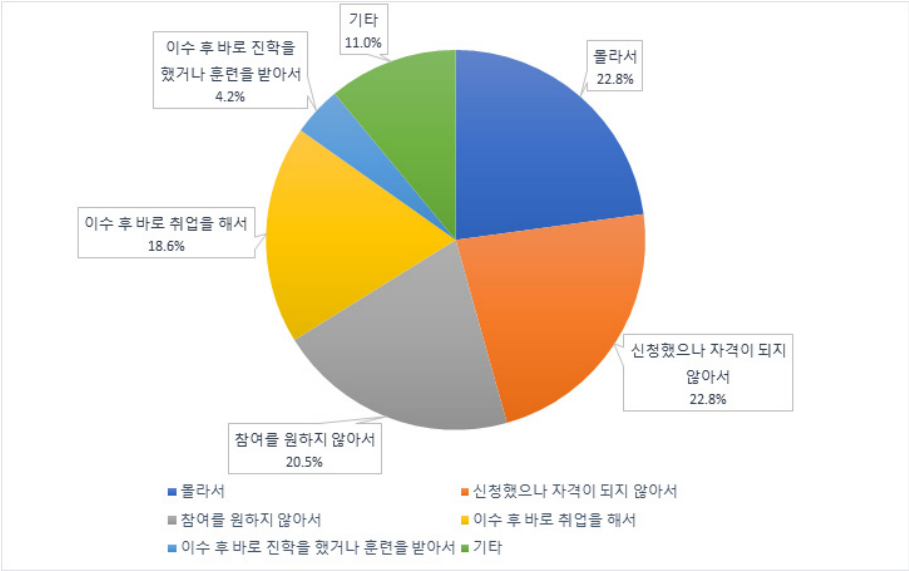


그림 III-6.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표 Ⅲ-1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N	몰라서	신청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서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	이수 후 바로 취업을 해서	이수 후 바로 진학을 했거나 훈련을 받아서	기타	계
전체		381	22.8	22.8	20.5	18.6	4.2	11.0	100.0
연령	만24세 이하	56	26.8	14.3	25.0	17.9	8.9	7.1	100.0
	만25-29세	207	19.8	25.6	19.8	17.9	4.3	12.6	100.0
	만30세 이상	118	26.3	22.0	19.5	20.3	1.7	10.2	100.0
성별	남	95	17.9	32.6	22.1	16.8	2.1	8.4	100.0
	여	286	24.5	19.6	19.9	19.2	4.9	11.9	100.0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43	14.0	30.2	18.6	7.0	4.7	25.6	100.0
	만성질환 없음	298	25.2	20.8	21.1	19.1	4.7	9.1	100.0
	응답거부	40	15.0	30.0	17.5	27.5	0.0	10.0	100.0
부모동거 여부	동거	263	24.7	23.6	22.1	16.0	4.2	9.5	100.0
	비동거	43	14.0	25.6	9.3	20.9	4.7	25.6	100.0
	독립	75	21.3	18.7	21.3	26.7	4.0	8.0	100.0
소득수준	소득 하	116	19.8	20.7	19.8	18.1	6.0	15.5	100.0
	소득 중	168	23.8	23.8	22.0	19.6	3.0	7.7	100.0
	소득 상	97	24.7	23.7	18.6	17.5	4.1	11.3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1	29.4	23.5	31.4	7.8	2.0	5.9	100.0
	초대졸	40	27.5	7.5	25.0	22.5	10.0	7.5	100.0
	4년제 대학 졸	273	20.5	24.9	18.7	20.5	4.0	11.4	100.0
	대학원 졸업	16	31.3	18.8	6.3	12.5	0.0	31.3	100.0
	잘 모르겠음	1	0.0	100.0	0.0	0.0	0.0	0.0	100.0

* 비고: 표Ⅲ-10 에서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후 사후관리 경험과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면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마친 후 전화를 통한 취업정보제공과 진로상담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문자 4명 중 1명 정도만이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명 중 1명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비된다. 문자를 통한 취업정보제공과 기타 정보 안내를 받은 경험은 2명 중 1명 이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0명 중 9명은 문자를 통한 정보 안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현재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받은 사후관리 서비스에 비해 청년들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자를 통한 정보 안내는 이수 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상담은 희망자에 한해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는 사업의 연속성과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기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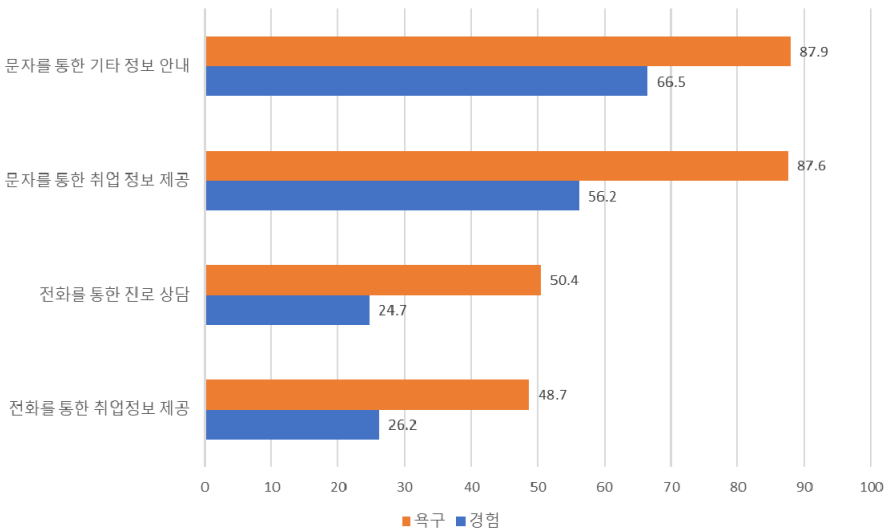


그림 III-7.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받은 사후관리 경험과 욕구

표 III-12.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받은 사후관리 서비스 대한 ‘경험 있다’ 응답의 비율

단위: %

구분		N	전화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전화를 통한 진로 상담*	문자를 통한 취업 정보 제공*	문자를 통한 기타 정보 안내*
전체		669	26.2	24.7	56.2	66.5
연령	만24세 이하	91	37.4	38.5	60.4	74.7
	만25-29세	372	26.1	24.2	54.3	65.3
	만30세 이상	206	21.4	19.4	57.8	65.0
성별	남	174	32.8	29.3	58.0	67.8
	여	495	23.8	23.0	55.6	66.1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25.9	25.9	55.3	65.9
	만성질환 없음	519	26.4	24.5	56.8	66.7
	응답거부	65	24.6	24.6	52.3	66.2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25.1	23.8	57.2	67.0
	비동거	84	31.0	29.8	47.6	58.3
	독립	139	26.6	24.5	58.3	69.8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22.4	21.5	58.5	67.8
	소득 중	299	25.1	22.7	56.2	64.9
	소득 상	165	32.7	32.1	53.3	6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28.7	27.7	60.6	67.0
	초대졸	82	31.7	25.6	50.0	64.6
	4년제 대학 졸	460	25.0	24.6	57.0	67.4
	대학원 졸업	27	22.2	18.5	48.1	59.3
	잘 모르겠음	6	16.7	0.0	50.0	50.0

* 비고: 각 서비스에 대하여 ‘있다’, ‘없다’로 응답한 문항으로 ‘있다’에 대한 %만 기재하여 합계가 100이 아님

표 III-1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후 사후관리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필요하다’ 응답의 비율

단위: %

구분		N	전화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	전화를 통한 진로 상담	문자를 통한 취업 정보 제공	문자를 통한 기타 정보 안내
전체		669	48.7	50.4	87.6	87.9
연령	만24세 이하	91	53.8	56.0	86.8	85.7
	만25-29세	372	51.3	52.4	87.9	87.9
	만30세 이상	206	41.7	44.2	87.4	88.8
성별	남	174	57.5	56.9	84.5	84.5
	여	495	45.7	48.1	88.7	89.1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57.6	57.6	84.7	83.5
	만성질환 없음	519	48.2	49.7	87.3	88.1
	응답거부	65	41.5	46.2	93.8	92.3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46.9	49.1	88.8	89.0
	비동거	84	59.5	59.5	84.5	85.7
	독립	139	48.2	48.9	85.6	85.6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54.1	58.0	90.2	91.2
	소득 중	299	45.5	46.2	87.3	88.6
	소득 상	165	47.9	48.5	84.8	82.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60.6	62.8	85.1	86.2
	초대졸	82	46.3	48.8	86.6	91.5
	4년제 대학 졸	460	47.4	48.5	87.6	87.4
	대학원 졸업	27	44.4	55.6	100.0	96.3
	잘 모르겠음	6	16.7	0.0	83.3	66.7

* 비고: 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불필요’로 응답한 문항으로 ‘필요’에 대한 %만 기재하여 합계가 100이 아님

청년도전지원사업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되었는지를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감(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취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등으로 나누어 물었다. 응답자들은 5점 만점 척도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감 3.65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3.62점, 취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 3.48점 등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4. 청년도전지원사업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5점*)

단위: 점

구분		N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취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전체		669	3.65	3.48	3.62
연령	만24세 이하	91	3.85	3.66	3.93
	만25-29세	372	3.69	3.47	3.60
	만30세 이상	206	3.51	3.42	3.52
성별	남	174	3.69	3.55	3.63
	여	495	3.64	3.46	3.62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3.67	3.36	3.52
	만성질환 없음	519	3.68	3.52	3.66
	응답거부	65	3.42	3.34	3.45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3.61	3.40	3.59
	비동거	84	3.69	3.55	3.56
	독립	139	3.77	3.69	3.76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3.61	3.41	3.61
	소득 중	299	3.59	3.45	3.53
	소득 상	165	3.84	3.62	3.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53	3.47	3.60
	초대졸	82	3.57	3.45	3.61
	4년제 대학 졸	460	3.72	3.50	3.64
	대학원 졸업	27	3.41	3.56	3.52
	잘 모르겠음	6	2.83	2.50	3.00

* 비고: 1점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2점 '거의 높아지지 않았다', 3점 '보통이다', 4점 '높아진 편이다', 5점 '매우 높아졌다'로 1점-5점으로 측정됨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다른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95.7%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이를 추천한다고 응답하였다. 추천사유와 비추천 사유에 대해 개방형 응답으로 물었을 때, 추천 의견은 실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줘서 고마웠고, 프로그램이 마음 치유(힐링)와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반면 비추천 의견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강사의 전문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추천 의견이 매우 높은 것은 고무적이거나, 이 조사가 전체 사업 참여자 중 중도탈락을 포함한 미수료 인원을 제외하고 이수자만 참여한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15.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천 의향

단위: %

구분		N	추천함	추천하지 않음	계
전체		669	95.7	4.3	100.0
연령	만24세 이하	91	96.7	3.3	100.0
	만25-29세	372	96.5	3.5	100.0
	만30세 이상	206	93.7	6.3	100.0
성별	남	174	94.8	5.2	100.0
	여	495	96.0	4.0	100.0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94.1	5.9	100.0
	만성질환 없음	519	96.5	3.5	100.0
	응답거부	65	90.8	9.2	100.0
부모동거 여부	동거	446	96.0	4.0	100.0
	비동거	84	100.0	0.0	100.0
	독립	139	92.1	7.9	100.0
소득수준	소득 하	205	95.6	4.4	100.0
	소득 중	299	95.7	4.3	100.0
	소득 상	165	95.8	4.2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94.7	5.3	100.0
	초대졸	82	92.7	7.3	100.0
	4년제 대학 졸	460	96.5	3.5	100.0
	대학원 졸업	27	100.0	0.0	100.0
	잘 모르겠음	6	66.7	33.3	100.0

■ 추천함 ■ 추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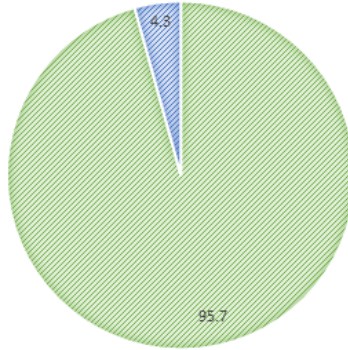


그림 III-8.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천 여부 (귀하께서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다른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추천 이유]



[비추천 이유]

그림 III-9.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천 및 비추천 이유

3) 참여자의 현재 상태 (사업참여 1년 경과 후 상태)

참여자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근로, 구직,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한 상태와 현재 일자리 없이 비구직 상태이고, 교육 및 훈련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평소 외출 정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외로움과 고립도 정도, 자기효능감 및 진로자신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청년들은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는지에 대해 56.5%가 일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9.5%였다. 이러한 수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전에 일을 하였다는 비율(25.0%)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값이다.

표 III-1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N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계
전체		669	56.5	4.0	39.5	100.0
연령	만24세 이하	91	59.3	3.3	37.4	100.0
	만25-29세	372	55.6	4.0	40.3	100.0
	만30세 이상	206	56.8	4.4	38.8	100.0
성별	남	174	54.0	5.2	40.8	100.0
	여	495	57.4	3.6	39.0	100.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41.2	8.2	50.6	100.0
	만성질환 없음	519	58.0	3.3	38.7	100.0
	응답거부	65	64.6	4.6	30.8	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51.6	3.8	44.6	100.0
	비동거	84	66.7	2.4	31.0	100.0
	독립	139	66.2	5.8	28.1	100.0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61.0	4.4	34.6	100.0
	소득 중	299	50.2	4.3	45.5	100.0
	소득 상	165	62.4	3.0	34.5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45.7	7.4	46.8	100.0
	초대졸	82	58.5	3.7	37.8	100.0
	4년제 대학 졸	460	57.2	3.5	39.3	100.0
	대학원 졸업	27	74.1	3.7	22.2	100.0
	잘 모르겠음	6	66.7	0.0	33.3	100.0

지난 주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 주 구직활동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5%가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7. 지난 주 구직활동(창업준비포함) 경험

단위: %

구분		N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계
전체		264	34.1	14.4	51.5	100.0
연령	만24세 이하	34	17.6	8.8	73.5	100.0
	만25-29세	150	40.0	14.7	45.3	100.0
	만30세 이상	80	30.0	16.3	53.8	100.0
성별	남	71	28.2	15.5	56.3	100.0
	여	193	36.3	14.0	49.7	100.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43	37.2	9.3	53.5	100.0
	만성질환 없음	201	33.8	15.4	50.7	100.0
	응답거부	20	30.0	15.0	55.0	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199	36.2	13.1	50.8	100.0
	비동거	26	30.8	15.4	53.8	100.0
	독립	39	25.6	20.5	53.8	100.0
소득 수준	소득 하	71	36.6	14.1	49.3	100.0
	소득 중	136	31.6	13.2	55.1	100.0
	소득 상	57	36.8	17.5	45.6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4	25.0	13.6	61.4	100.0
	초대졸	31	22.6	19.4	58.1	100.0
	4년제 대학 졸	181	37.6	13.8	48.6	100.0
	대학원 졸업	6	50.0	16.7	33.3	100.0
	잘 모르겠음	2	50.0	0.0	50.0	100.0

* 비고: 표Ⅲ-16 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33.8%),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32.4%),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1.6%),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30.9%),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28.7)' 등의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각각의 응답 비율은 사업참여 전 니트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는 52.3%에서 33.8%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는 38.8%에서 32.4%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는 40.5%에서 31.6%로 줄어들었다. 반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는 28.7%에서 24.3% 상대적으로 그 감소의 폭이 작는데 이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비구직 상태에 있어 비교적 단기적인 서비스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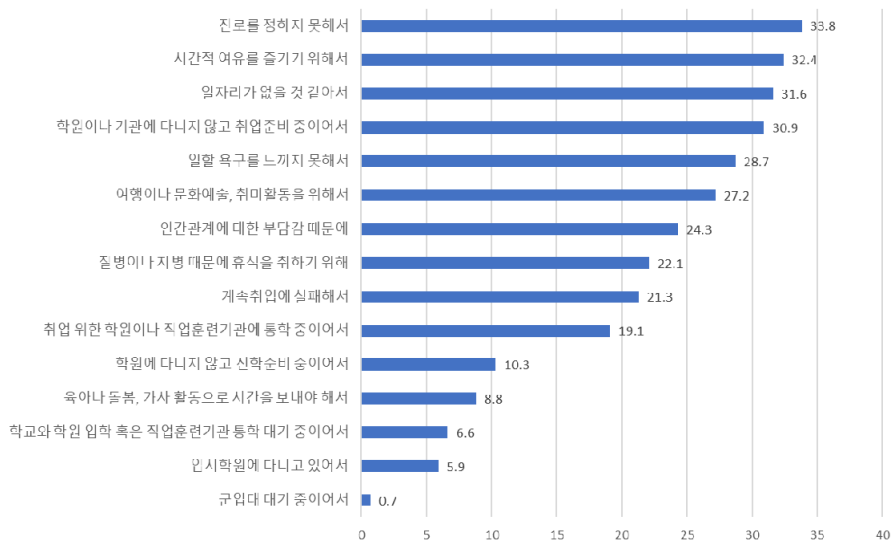


그림 III-10. 지난 주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이유 (다중응답)

표 III-18-1.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 응답의 비율 [계속]

단위: %

구분		N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전체		136	31.6	28.7	27.2	32.4	8.8
연령	만24세 이하	25	12.0	24.0	28.0	44.0	4.0
	만25-29세	68	36.8	27.9	32.4	33.8	5.9
	만30세 이상	43	34.9	32.6	18.6	23.3	16.3
성별	남	40	27.5	30.0	17.5	27.5	5.0
	여	96	33.3	28.1	31.3	34.4	10.4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23	13.0	21.7	26.1	21.7	4.3
	만성질환 없음	102	35.3	28.4	27.5	33.3	9.8
	응답거부	11	36.4	45.5	27.3	45.5	9.1
부모 동거 여부	동거	101	33.7	28.7	21.8	28.7	5.9
	비동거	14	21.4	35.7	42.9	42.9	0.0
	독립	21	28.6	23.8	42.9	42.9	28.6
소득 수준	소득 하	35	34.3	25.7	28.6	40.0	8.6
	소득 중	75	32.0	28.0	26.7	29.3	12.0
	소득 상	26	26.9	34.6	26.9	30.8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25.9	22.2	25.9	37.0	0.0
	초대졸	18	38.9	33.3	27.8	44.4	11.1
	4년제 대학 졸	88	33.0	30.7	28.4	28.4	10.2
	대학원 졸업	2	0.0	0.0	0.0	0.0	50.0
	잘 모르겠음	1	0.0	0.0	0.0	100.0	0.0

* 비교: 표 III-17에서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각 이유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으로 '예'에 대한 %만 기재하여 합계가 100이 아님

표 III-18-2.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 응답의 비율 [계속]

단위: %

구분		N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취업 위한 학원이나 직업 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전체		136	22.1	5.9	10.3	19.1	30.9
연령	만24세 이하	25	16.0	8.0	28.0	20.0	20.0
	만25-29세	68	23.5	5.9	7.4	20.6	33.8
	만30세 이상	43	23.3	4.7	4.7	16.3	32.6
성별	남	40	22.5	5.0	7.5	15.0	25.0
	여	96	21.9	6.3	11.5	20.8	33.3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23	43.5	4.3	8.7	17.4	17.4
	만성질환 없음	102	13.7	6.9	10.8	20.6	34.3
	응답거부	11	54.5	0.0	9.1	9.1	27.3
부모 동거 여부	동거	101	18.8	7.9	8.9	19.8	32.7
	비동거	14	42.9	0.0	7.1	21.4	50.0
	독립	21	23.8	0.0	19.0	14.3	9.5
소득 수준	소득 하	35	37.1	2.9	20.0	22.9	34.3
	소득 중	75	18.7	4.0	8.0	18.7	32.0
	소득 상	26	11.5	15.4	3.8	15.4	23.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29.6	7.4	14.8	14.8	22.2
	초대졸	18	33.3	0.0	11.1	38.9	5.6
	4년제 대학 졸	88	17.0	5.7	8.0	15.9	38.6
	대학원 졸업	2	0.0	50.0	50.0	50.0	50.0
	잘 모르겠음	1	100.0	0.0	0.0	0.0	0.0

* 비교: 표 III-17에서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각 이유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으로 '예'에 대한 %만 기재하여 합계가 100이 아님

표 Ⅲ-18-3.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예' 응답의 비율

단위: %

구분		N	군입대 대기 중이어서**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계속취업에 실패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전체		136	0.7	6.6	21.3	24.3	33.8
연령	만24세 이하	25	4.0	16.0	16.0	8.0	24.0
	만25-29세	68	0.0	7.4	20.6	30.9	41.2
	만30세 이상	43	0.0	0.0	25.6	23.3	27.9
성별	남	40	2.5	5.0	22.5	25.0	32.5
	여	96	0.0	7.3	20.8	24.0	34.4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23	0.0	8.7	21.7	30.4	39.1
	만성질환 없음	102	1.0	6.9	20.6	19.6	30.4
	응답거부	11	0.0	0.0	27.3	54.5	54.5
부모 동거 여부	동거	101	1.0	6.9	25.7	26.7	33.7
	비동거	14	0.0	0.0	7.1	28.6	28.6
	독립	21	0.0	9.5	9.5	9.5	38.1
소득 수준	소득 하	35	0.0	8.6	22.9	22.9	40.0
	소득 중	75	1.3	5.3	20.0	28.0	30.7
	소득 상	26	0.0	7.7	23.1	15.4	34.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3.7	11.1	22.2	29.6	37.0
	초대졸	18	0.0	0.0	22.2	50.0	44.4
	4년제 대학 졸	88	0.0	6.8	21.6	18.2	30.7
	대학원 졸업	2	0.0	0.0	0.0	0.0	50.0
	잘 모르겠음	1	0.0	0.0	0.0	0.0	0.0

* 비교: 표Ⅲ-17에서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각 이유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으로 '예'에 대한 %만 기재하여 합계가 100이 아님

지난 주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로 청년들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14.3%)’,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10.2%)’,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10.2%)’ 등을 주로 꼽았다. 이외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9.2%)’,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6.1%)’,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3.1%)’ 등을 주된 이유로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도전지원사업 1년 이후 비구직 니트의 비율은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니트 상태의 청년들이 존재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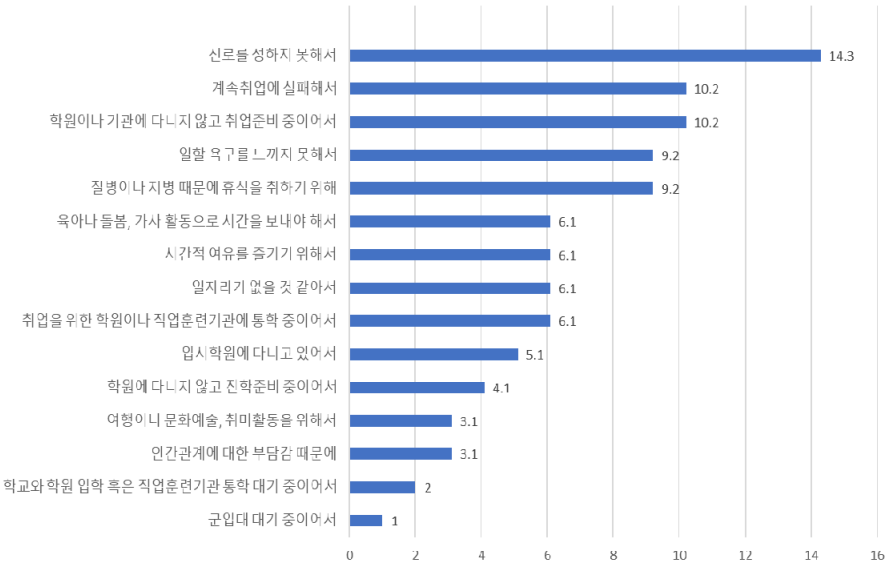


그림 III-11. 지난 주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이유 (주된 이유)

표 Ⅲ-19-1.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하나만 선택) [계속]

단위: %

구분		N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 위해서**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전체		136	6.1	9.2	3.1	6.1	6.1
연령	만24세 이하	25	5.6	5.6	5.6	11.1	0.0
	만25~29세	68	5.9	5.9	2.0	5.9	3.9
	만30세 이상	43	6.9	17.2	3.4	3.4	13.8
성별	남	40	3.7	11.1	0.0	7.4	0.0
	여	96	7.0	8.5	4.2	5.6	8.5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23	0.0	0.0	6.7	6.7	0.0
	만성질환 없음	102	8.0	12.0	2.7	6.7	8.0
	응답거부	11	0.0	0.0	0.0	0.0	0.0
부모님과 동거 여부	동거	101	7.2	10.1	1.4	2.9	1.4
	비동거	14	0.0	20.0	10.0	10.0	0.0
	독립	21	5.3	0.0	5.3	15.8	26.3
소득 수준	소득 하	35	8.0	8.0	4.0	8.0	0.0
	소득 중	75	7.4	9.3	3.7	1.9	11.1
	소득 상	26	0.0	10.5	0.0	15.8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5.3	5.3	5.3	5.3	0.0
	초대졸	18	7.7	7.7	7.7	0.0	7.7
	4년제 대학 졸	88	6.3	11.1	1.6	7.9	6.3
	대학원 졸업	2	0.0	0.0	0.0	0.0	50.0
	잘 모르겠음	1	0.0	0.0	0.0	0.0	0.0

* 비교: 표Ⅲ-17 에서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표Ⅲ-18-1, 표Ⅲ-18-2, 표Ⅲ-18-3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 선택함

표 Ⅲ-19-2.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하나만 선택) [계속]

단위: %

구분		N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 다니 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 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	학원이나 기 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 비 중이어서 **
전체		136	9.2	5.1	4.1	6.1	10.2
연령	만24세 이하	25	11.1	5.6	11.1	5.6	11.1
	만25-29세	68	9.8	5.9	3.9	7.8	13.7
	만30세 이상	43	6.9	3.4	0.0	3.4	3.4
성별	남	40	3.7	7.4	7.4	0.0	7.4
	여	96	11.3	4.2	2.8	8.5	11.3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23	20.0	6.7	6.7	6.7	0.0
	만성질환 없음	102	4.0	5.3	4.0	6.7	12.0
	응답거부	11	37.5	0.0	0.0	0.0	12.5
부모 동거 여부	동거	101	13.0	7.2	2.9	4.3	10.1
	비동거	14	0.0	0.0	0.0	10.0	30.0
	독립	21	0.0	0.0	10.5	10.5	0.0
소득 수준	소득 하	35	12.0	4.0	8.0	4.0	8.0
	소득 중	75	7.4	1.9	1.9	7.4	14.8
	소득 상	26	10.5	15.8	5.3	5.3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10.5	10.5	15.8	5.3	0.0
	초대졸	18	23.1	0.0	0.0	7.7	7.7
	4년제 대학 졸	88	4.8	3.2	1.6	6.3	14.3
	대학원 졸업	2	0.0	50.0	0.0	0.0	0.0
	잘 모르겠음	1	100.0	0.0	0.0	0.0	0.0

* 비교: 표Ⅲ-17 에서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표Ⅲ-18-1, 표Ⅲ-18-2, 표Ⅲ-18-3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 선택함

표 Ⅲ-19-3.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하나만 선택)

단위: %

구분		N	군입대 대기 중이어서**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계속취업에 실패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전체		136	1.0	2.0	10.2	3.1	14.3
연령	만24세 이하	25	5.6	0.0	0.0	0.0	16.7
	만25-29세	68	0.0	3.9	11.8	0.0	15.7
	만30세 이상	43	0.0	0.0	13.8	10.3	10.3
성별	남	40	3.7	0.0	14.8	7.4	14.8
	여	96	0.0	2.8	8.5	1.4	14.1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23	0.0	6.7	20.0	6.7	6.7
	만성질환 없음	102	1.3	1.3	9.3	1.3	14.7
	응답거부	11	0.0	0.0	0.0	12.5	25.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101	1.4	2.9	13.0	4.3	14.5
	비동거	14	0.0	0.0	0.0	0.0	10.0
	독립	21	0.0	0.0	5.3	0.0	15.8
소득 수준	소득 하	35	0.0	4.0	0.0	8.0	20.0
	소득 중	75	1.9	1.9	14.8	1.9	11.1
	소득 상	26	0.0	0.0	10.5	0.0	15.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5.3	5.3	0.0	5.3	21.1
	초대졸	18	0.0	0.0	15.4	0.0	15.4
	4년제 대학 졸	88	0.0	1.6	12.7	3.2	12.7
	대학원 졸업	2	0.0	0.0	0.0	0.0	0.0
	잘 모르겠음	1	0.0	0.0	0.0	0.0	0.0

* 비교: 표Ⅲ-17 에서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 비교: 표Ⅲ-18-1, 표Ⅲ-18-2, 표Ⅲ-18-3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 선택함

비구직 니트 청년들에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면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가 5명 중 1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 2년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2명 중 1명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상태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 니트 청년들에게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성화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20.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단위: %

구분		N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계
전체		136	5.9	12.5	30.1	51.5	100.0
연령	만24세 이하	25	8.0	20.0	44.0	28.0	100.0
	만25-29세	68	5.9	11.8	27.9	54.4	100.0
	만30세 이상	43	4.7	9.3	25.6	60.5	100.0
성별	남	40	5.0	12.5	30.0	52.5	100.0
	여	96	6.3	12.5	30.2	51.0	100.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23	8.7	17.4	26.1	47.8	100.0
	만성질환 없음	102	5.9	12.7	28.4	52.9	100.0
	응답거부	11	0.0	0.0	54.5	45.5	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101	4.0	12.9	29.7	53.5	100.0
	비동거	14	7.1	7.1	35.7	50.0	100.0
	독립	21	14.3	14.3	28.6	42.9	100.0
소득 수준	소득 하	35	11.4	14.3	17.1	57.1	100.0
	소득 중	75	4.0	9.3	34.7	52.0	100.0
	소득 상	26	3.8	19.2	34.6	42.3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	0.0	18.5	14.8	66.7	100.0
	초대졸	18	16.7	0.0	50.0	33.3	100.0
	4년제 대학 졸	88	5.7	12.5	29.5	52.3	100.0
	대학원 졸업	2	0.0	0.0	100.0	0.0	100.0
	잘 모르겠음	1	0.0	100.0	0.0	0.0	100.0

* 비고: 표Ⅲ-17 에서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15.8%는 외출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보통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의 합산 비율이 5.1%였다(유민상, 신동훈, 2021). 이에 반해 이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취업, 훈련 등을 받는 청년과 비구직 니트 청년들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 비구직 니트 청년은 외출을 잘 하지 않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와 단절될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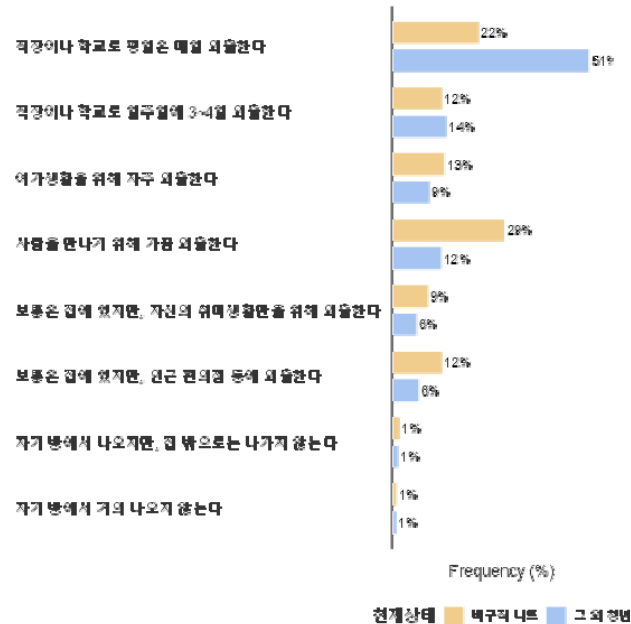


그림 III-12. 외출정도

표 III-21-1. 평소 외출 정도 [계속]

단위: %

구분		N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 일에 3~4일 외출한다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전체		669	45.0	13.5	10.0	15.7	6.4
연령	만24세 이하	91	46.2	13.2	14.3	15.4	1.1
	만25-29세	372	46.5	13.7	9.1	15.9	7.0
	만30세 이상	206	41.7	13.1	9.7	15.5	7.8
성별	남	174	43.7	16.7	11.5	16.1	8.0
	여	495	45.5	12.3	9.5	15.6	5.9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40.0	11.8	5.9	20.0	14.1
	만성질환 없음	519	46.2	13.9	11.6	14.8	5.0
	응답거부	65	41.5	12.3	3.1	16.9	7.7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40.8	13.9	11.7	16.6	7.0
	비동거	84	53.6	16.7	7.1	8.3	6.0
	독립	139	53.2	10.1	6.5	17.3	5.0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44.9	16.1	8.3	16.1	5.4
	소득 중	299	43.8	8.4	9.7	18.7	7.7
	소득 상	165	47.3	19.4	12.7	9.7	5.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27.7	20.2	11.7	22.3	3.2
	초대졸	82	41.5	13.4	15.9	11.0	7.3
	4년제 대학 졸	460	48.7	12.4	8.7	15.4	7.0
	대학원 졸업	27	55.6	7.4	11.1	11.1	7.4
	잘 모르겠음	6	33.3	16.7	0.0	16.7	0.0

표 III-21-2. 평소 외출 정도

단위: %

구분		N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 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계
전체		669	7.6	1.2	0.6	100.0
연령	만24세 이하	91	7.7	1.1	1.1	100.0
	만25-29세	372	5.9	1.3	0.5	100.0
	만30세 이상	206	10.7	1.0	0.5	100.0
성별	남	174	2.9	0.6	0.6	100.0
	여	495	9.3	1.4	0.6	100.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5.9	2.4	0.0	100.0
	만성질환 없음	519	6.9	0.8	0.8	100.0
	응답거부	65	15.4	3.1	0.0	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8.5	0.9	0.7	100.0
	비동거	84	4.8	3.6	0.0	100.0
	독립	139	6.5	0.7	0.7	100.0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7.8	0.5	1.0	100.0
	소득 중	299	9.4	2.0	0.3	100.0
	소득 상	165	4.2	0.6	0.6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10.6	4.3	0.0	100.0
	초대졸	82	8.5	2.4	0.0	100.0
	4년제 대학 졸	460	6.5	0.4	0.9	100.0
	대학원 졸업	27	7.4	0.0	0.0	100.0
	잘 모르겠음	6	33.3	0.0	0.0	100.0

‘보통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등과 같이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현재 상태의 지속 기간을 묻은 결과 6개월 미만이 20.8%, 1년 미만이 20.8%로 절반 정도는 비교적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5년, 5~7년, 7년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들도 있어 단절과 고립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회복은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 Ⅲ-22. 현재 상태 지속 기간*

단위: %

구분		N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 이상	계
전체		106	20.8	20.8	34.9	13.2	5.7	4.7	100.0
연령	만24세 이하	10	30.0	30.0	40.0	0.0	0.0	0.0	100.0
	만25~29세	55	18.2	21.8	36.4	14.5	7.3	1.8	100.0
	만30세 이상	41	22.0	17.1	31.7	14.6	4.9	9.8	100.0
성별	남	21	14.3	19.0	38.1	14.3	0.0	14.3	100.0
	여	85	22.4	21.2	34.1	12.9	7.1	2.4	100.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19	21.1	10.5	42.1	15.8	5.3	5.3	100.0
	만성질환 없음	70	24.3	24.3	28.6	14.3	4.3	4.3	100.0
	응답거부	17	5.9	17.6	52.9	5.9	11.8	5.9	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76	18.4	22.4	34.2	14.5	5.3	5.3	100.0
	비동거	12	25.0	8.3	41.7	8.3	8.3	8.3	100.0
	독립	18	27.8	22.2	33.3	11.1	5.6	0.0	100.0
소득 수준	소득 하	30	20.0	16.7	23.3	23.3	10.0	6.7	100.0
	소득 중	58	25.9	20.7	41.4	5.2	3.4	3.4	100.0
	소득 상	18	5.6	27.8	33.3	22.2	5.6	5.6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	29.4	17.6	35.3	5.9	5.9	5.9	100.0
	초대졸	15	13.3	6.7	53.3	6.7	13.3	6.7	100.0
	4년제 대학 졸	68	17.6	23.5	32.4	17.6	4.4	4.4	100.0
	대학원 졸업	4	50.0	25.0	25.0	0.0	0.0	0.0	100.0
	잘 모르겠음	2	50.0	50.0	0.0	0.0	0.0	0.0	100.0

* 비교: 표Ⅲ-21-1, 표Ⅲ-21-2에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혹은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혹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혹은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외출을 잘 하지 않게 된 계기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가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시험 준비나 코로나19 등으로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외출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현재의 상태가 개선된다면 앞으로 다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판단된다.

표 Ⅲ-23. 현재 상태가 된 계기*

단위: %

구분		N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인간 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 해서	학업 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기타	계
전체		106	62.3	9.4	5.7	2.8	0.9	18.9	100.0
연령	만24세 이하	10	40.0	0.0	0.0	20.0	0.0	40.0	100.0
	만25~29세	55	67.3	3.6	3.6	1.8	0.0	23.6	100.0
	만30세 이상	41	61.0	19.5	9.8	0.0	2.4	7.3	100.0
성별	남	21	61.9	14.3	14.3	0.0	0.0	9.5	100.0
	여	85	62.4	8.2	3.5	3.5	1.2	21.2	100.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19	42.1	10.5	21.1	5.3	0.0	21.1	100.0
	만성질환 없음	70	71.4	8.6	1.4	2.9	1.4	14.3	100.0
	응답거부	17	47.1	11.8	5.9	0.0	0.0	35.3	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76	67.1	5.3	2.6	3.9	0.0	21.1	100.0
	비동거	12	41.7	33.3	16.7	0.0	0.0	8.3	100.0
	독립	18	55.6	11.1	11.1	0.0	5.6	16.7	100.0
소득 수준	소득 하	30	46.7	23.3	6.7	3.3	0.0	20.0	100.0
	소득 중	58	65.5	3.4	6.9	3.4	1.7	19.0	100.0
	소득 상	18	77.8	5.6	0.0	0.0	0.0	16.7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	64.7	5.9	11.8	5.9	0.0	11.8	100.0
	초대졸	15	46.7	13.3	0.0	0.0	0.0	40.0	100.0
	4년제 대학 졸	68	64.7	10.3	5.9	1.5	1.5	16.2	100.0
	대학원 졸업	4	75.0	0.0	0.0	0.0	0.0	25.0	100.0
	잘 모르겠음	2	50.0	0.0	0.0	50.0	0.0	0.0	100.0

*비고: 표Ⅲ-21-1, 표Ⅲ-21-2에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혹은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혹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혹은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로 응답한 사람들이 응답한 문항임

참여자들의 진로 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효능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Ⅲ-24-1. 진로 효능감 [계속]

단위: 점

구분		N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전체		669	4.49	4.71	4.50	4.62
연령	만24세 이하	91	4.71	4.95	4.60	5.00
	만25-29세	372	4.48	4.69	4.46	4.52
	만30세 이상	206	4.39	4.64	4.51	4.62
성별	남	174	4.43	4.62	4.47	4.53
	여	495	4.51	4.74	4.51	4.65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4.18	4.58	4.38	4.47
	만성질환 없음	519	4.60	4.75	4.54	4.66
	응답거부	65	3.95	4.52	4.28	4.45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4.41	4.67	4.40	4.57
	비동거	84	4.46	4.57	4.56	4.44
	독립	139	4.73	4.91	4.76	4.89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4.36	4.62	4.45	4.55
	소득 중	299	4.42	4.60	4.39	4.55
	소득 상	165	4.76	5.00	4.75	4.8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95	4.34	4.09	4.38
	초대졸	82	4.41	4.71	4.37	4.70
	4년제 대학 졸	460	4.60	4.77	4.57	4.65
	대학원 졸업	27	4.70	4.93	5.04	4.78
	잘 모르겠음	6	4.50	4.50	4.50	4.33

* 비고: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약간 아니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로 1점-6점으로 측정됨

표 III-24-2. 진로 효능감

단위: 점

구분		N	나는 항상 목표 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 어서 일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에게 명확 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 한 자원을 알고 있다.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
전체		669	4.33	4.39	3.96	4.25
연령	만24세 이하	91	4.66	4.67	4.33	4.43
	만25-29세	372	4.25	4.27	3.93	4.27
	만30세 이상	206	4.33	4.47	3.87	4.15
성별	남	174	4.20	4.34	3.96	4.41
	여	495	4.38	4.40	3.97	4.20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4.20	4.15	3.88	4.14
	만성질환 없음	519	4.39	4.46	4.01	4.33
	응답거부	65	4.02	4.11	3.69	3.8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4.24	4.32	3.88	4.26
	비동거	84	4.17	4.32	3.98	3.99
	독립	139	4.74	4.63	4.24	4.41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4.19	4.29	3.89	4.04
	소득 중	299	4.29	4.31	3.91	4.21
	소득 상	165	4.59	4.64	4.16	4.5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4.14	4.15	3.67	4.04
	초대졸	82	4.20	4.43	3.99	4.33
	4년제 대학 졸	460	4.37	4.40	4.01	4.24
	대학원 졸업	27	4.78	4.78	4.19	4.85
	잘 모르겠음	6	4.33	4.33	4.00	4.83

* 비교: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약간 아니다', 4점 '약간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로 1점-6점으로 측정됨

진로 자신감은 원하는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3.45점), 자신이 선택한 진로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3.40점). 내가 원하는 전공 또는 직업을 얻지 못했을 경우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게 나왔는데(3.13점), 아무래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응답 역시 나이가 어린 집단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진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25. 진로 자신감

단위: 점

구분		N	나는 원하는 직업 이나 관련 있는 고용주나 회사, 혹은 기관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원하는 교육기관(학원, 대학, 전문교육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전공 또는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진로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전체		669	3.36	3.45	3.13	3.40
연령	만24세 이하	91	3.66	3.81	3.42	3.77
	만25~29세	372	3.35	3.41	3.08	3.39
	만30세 이상	206	3.24	3.37	3.12	3.26
성별	남	174	3.41	3.44	3.23	3.44
	여	495	3.34	3.46	3.10	3.39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3.16	3.39	2.95	3.29
	만성질환 없음	519	3.42	3.50	3.20	3.45
	응답거부	65	3.14	3.12	2.85	3.14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3.27	3.38	3.02	3.34
	비동거	84	3.43	3.44	3.06	3.40
	독립	139	3.62	3.68	3.54	3.58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3.17	3.38	2.92	3.22
	소득 중	299	3.28	3.35	3.09	3.34
	소득 상	165	3.75	3.73	3.47	3.7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17	3.31	3.06	3.20
	초대졸	82	3.22	3.32	3.04	3.37
	4년제 대학 졸	460	3.40	3.48	3.15	3.44
	대학원 졸업	27	3.85	3.93	3.41	3.59
	잘 모르겠음	6	3.00	3.17	3.50	2.83

* 비교: 1점 '전혀 자신없다', 2점 '별로 자신없다', 3점 '어느정도 자신 있다', 4점 '꽤 자신 있다', 5점 '매우 자신 있다'로 1점-5점으로 측정됨

4) 참여자의 사전-사후 상태 비교

(1) 경제활동 상태

이 연구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전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경제 활동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경제활동 상태는 일자리 여부와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구직활동 여부에 근거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III-26. 참여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구분			현재 상태			
			일	구직	비구직	Total
과거 상태	일	N	137	16	14	167
		%	82.04	9.58	8.38	100
	구직	N	136	68	40	244
		%	55.74	27.87	16.39	100
	비구직	N	132	44	82	258
		%	51.16	17.05	31.78	100
	Total	N	405	128	136	669
		%	60.54	19.13	20.33	100

사업참여 이전 상태를 살펴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1달 전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했다는 응답자는 167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24.96%를 차지했다. 이는 지역 특례에 따라 니트 상태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용 가능한 3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년의 상태는 구직활동 중이던 경우 244명(36.47%)과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던 경우 258명(38.57%)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 상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후 큰 폭으로 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의 조사기준일(2022년 8월 1일)의 일주일 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일했다는 응답자(휴가 및 일시휴직 포함)는 405명으로 기존 24.96%에서 60.54%로 약 35%p 증가하였다. 반면,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자는 128명으로 기존 36.47%에서 19.13%로 약 17%p 감소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38.57%에서 20.33%로 약 18%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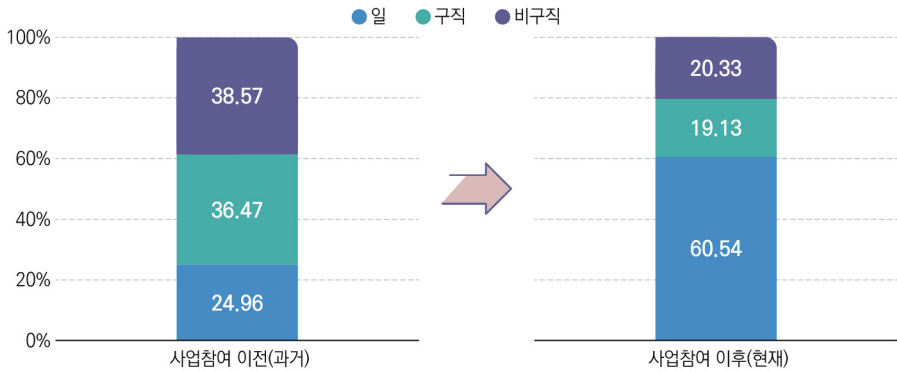


그림 Ⅲ-13. 참여자 경제활동 상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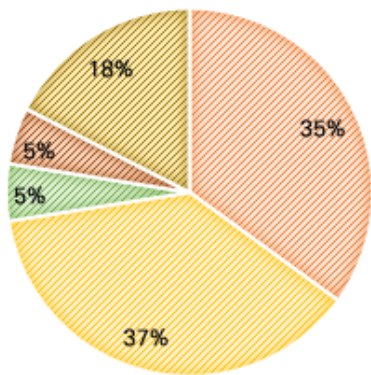
사업참여 이전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도 과반이상은 지난 일주일간 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참여 이전 상태에 따른 상태 의존성이 다소 있었다. 사업참여 이전 비구직 상태였던 참여자 중 사업참여 이후에도 여전히 비구직 상태인 경우가 31.78%, 사업참여 이전 구직활동 중이었던 참여자 중 사업참여 이후에도 구직활동 중인 비율이 27.87%로 각각 ‘일’을 제외한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4. 참여자 경제활동 상태 변화

사업참여 이전 구직활동 중이거나 일을 했던 참여자 중에서, 사업참여 이후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총 40명)도 확인된다. 그림 III-14를 보면 이들은 각각 16.39%(사업참여 이전 구직상태)와 8.38%(사업참여 이전 일하고 있었음)를 차지한다. 이는 보다 세부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참여자의 비구직 사유를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들의 비구직 사유 가운데 주된 이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 구직단념 ■ 입시 및 취업준비 ■ 진로미정 ■ 인간관계부담 ■ 기타



*N=40 (사업참여 이전 구직 또는 일 → 사업참여 이후 비구직)
 - 구직단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 입시 및 취업준비: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 진로미정: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 인간관계부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기타: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기타

그림 III-15. 경제활동 상태의 부정적 변화 참여자의 주된 비구직 사유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구직단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꼽았던 응답자는 35%(14명), 입시 및 취업준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37%(15명), 진로미결정 5%(2명), 인간관계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 5%(2명), 그리고 기타 사유가 1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적어도 소수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층을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과 같은 사례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2) 사업 참여 이전 상태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서비스나 소득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활동 의욕을 상실하거나 극히 낮은 활성화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요구하는 참여수준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의욕을 제고 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77%를 차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전 상태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비구직 상태였던 경우 39.92%, 구직 상태였던 경우 37.7%, 그리고 일을 했던 경우 30.54%로 참여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일을 했거나 구직 상태였던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전에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지원대상이 되지 않거나, 청년도전지원사업 이후 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27. 사업 참여 이전 상태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참여	미참여	모르겠음	Total
과거 상태	일	N	51	104	12	167
		%	30.54	62.28	7.19	100
	구직	N	92	139	13	244
		%	37.7	56.97	5.33	100
	비구직	N	103	138	17	258
		%	39.92	53.49	6.59	100
	Total	N	246	381	42	669
		%	36.77	56.95	6.28	100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일을 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던 청년들의 약 40%가 사업 참여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했다는 것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53.49%의 참여자가 사업참여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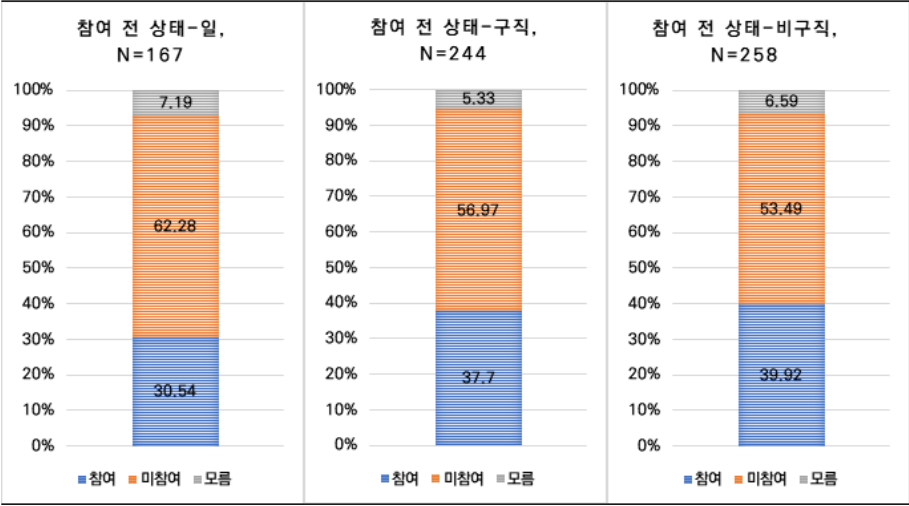


그림 Ⅲ-16. 사업 참여 이전 상태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이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몰라서 (31.88%),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21.74%), 신청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서(20.29%)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몰라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업 참여 이전에 일(18.27%) 또는 구직(17.27%) 상태였던 청년들에 비해 13%p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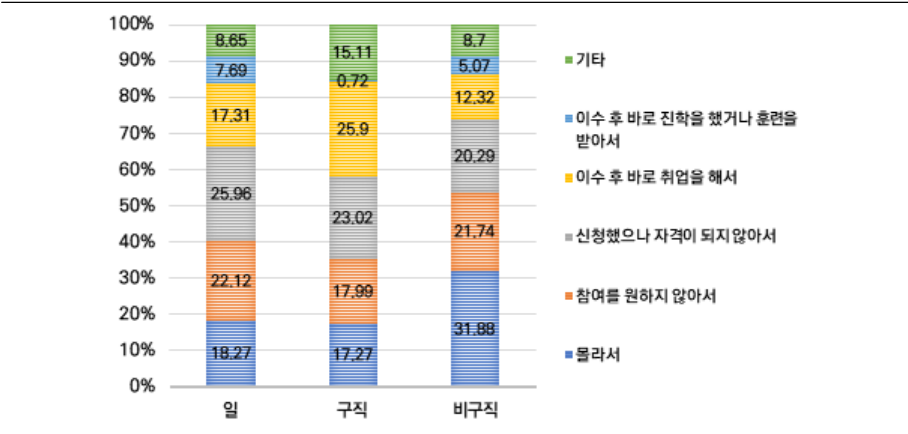


그림 III-17. 사업 참여 이전 상태에 따른 사업 참여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이유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현재 상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노력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 의욕이 낮은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성인기로 이행하는 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모두 참여한 청년들과 청년도전지원사업만 참여한 청년들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 살펴보았다.

표 III-2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현재 상태

구분			현재 상태			
			일	구직	비구직	Total
참여 여부	참여	N	141	57	48	246
		%	57.32	23.17	19.51	100
	미참여	N	233	67	81	381
		%	61.15	17.59	21.26	100
	모름	N	31	4	7	42
		%	73.81	9.52	16.67	100
	Total	N	405	128	136	669
		%	60.54	19.13	20.33	100

분석결과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61.15%)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참여한 경우(57.32%)보다 다소 높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 집단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집단과 비교해 비구직 상태에 있는 비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2%p 미만으로 작았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를 위한 조건이 있고, 원천적으로 재참여가 불가능한 까닭에 비자발적 사유를 제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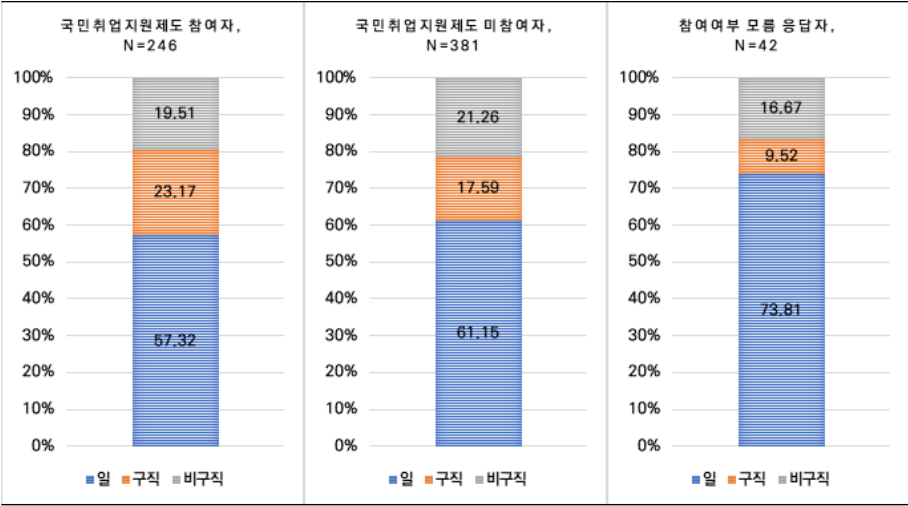


그림 III-1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따른 현재 상태

다음의 그림 III-19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힌 응답자 가운데 미참여 사유를 취업, 진학, 훈련이나 참여자격 안됨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시한 174명의 사례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결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기존 61.15%에서 54.59%로 감소하였다. 반면, 비구직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존 21.26%에서 28.5%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에 따른 비구직 상태의 차이가 9%p 정도로 벌어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에 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비구직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일과 관련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가

2.73%에 불과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풍부한 자료를 통해 심층적 분석을 수행할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경제활동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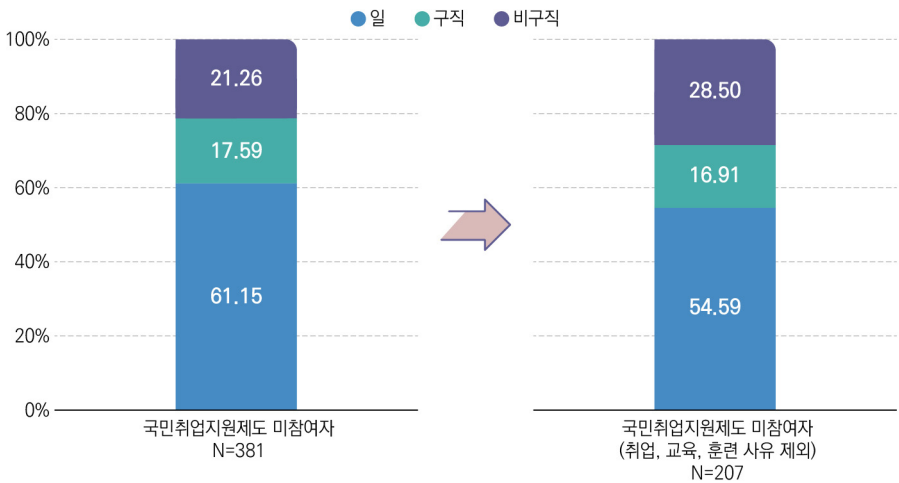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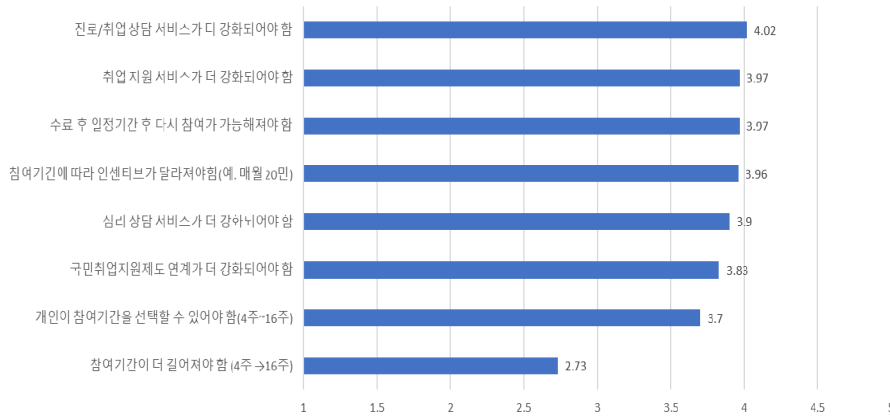


그림 Ⅲ-19.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자 현재 상태 비교

5) 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마지막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와 취업지원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높게 동의하였고, 수료 후 일정 기간 후 다시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 참여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를 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참여기간과 관련한 응답은 동의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참여기간이 더 길어져야 함'이라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았다(2.73점). 다만, 이러한 의견은 매월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추가 제공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비고: 1점 '매우 반대한다', 2점 '약간 반대한다', 3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점 '약간 찬성한다', 5점 '매우 찬성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그림 III-20.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표 III-29-1.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타당도(5점) [계속]

단위: 점

구분		N	참여기간이 더 길어져야 함 (4주 →16주)	개인이 참여기 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4주~16주)	참여기간에 따 라 인센티브가 달라져야함 (예. 매월 20만)	심리 상담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함
전체		669	2.73	3.70	3.96	3.90
연령	만24세 이하	91	2.58	3.88	3.98	3.76
	만25~29세	372	2.72	3.66	3.93	3.87
	만30세 이상	206	2.81	3.67	4.01	4.00
성별	남	174	2.80	3.51	3.87	3.80
	여	495	2.70	3.76	3.99	3.93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2.55	3.56	3.91	4.19
	만성질환 없음	519	2.73	3.69	3.94	3.82
	응답거부	65	2.91	3.95	4.17	4.12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2.67	3.69	3.94	3.90
	비동거	84	2.75	3.58	3.98	3.89
	독립	139	2.88	3.80	4.01	3.90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2.85	3.72	3.96	4.08
	소득 중	299	2.70	3.72	4.01	3.86
	소득 상	165	2.62	3.62	3.88	3.7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2.89	3.87	4.13	4.04
	초대졸	82	2.68	3.49	3.62	3.73
	4년제 대학 졸	460	2.68	3.69	3.96	3.87
	대학원 졸업	27	3.00	3.74	4.41	4.41
	잘 모르겠음	6	3.00	3.83	4.00	3.33

* 비고: 1점 '매우 반대한다', 2점 '약간 반대한다', 3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점 '약간 찬성한다', 5점 '매우 찬성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표 III-29-2.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타당도(5점)

단위: 점

구분		N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함	국민취업지원 제도 연계가 더 강화되어야 함	취업 지원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함	수료 후 일정기간 후 다시 참여가 가능해져야 함
전체		669	4.02	3.83	3.97	3.97
연령	만24세 이하	91	3.91	3.70	3.86	4.08
	만25-29세	372	4.02	3.83	3.97	3.96
	만30세 이상	206	4.06	3.90	4.02	3.96
성별	남	174	3.97	3.79	3.86	3.84
	여	495	4.04	3.85	4.01	4.02
만성 질환 여부	만성질환 있음	85	3.98	3.71	3.94	3.94
	만성질환 없음	519	4.02	3.85	3.97	3.95
	응답거부	65	4.12	3.88	4.03	4.18
부모 동거 여부	동거	446	4.02	3.79	3.97	3.96
	비동거	84	4.02	3.80	3.81	4.00
	독립	139	4.03	3.98	4.07	4.00
소득 수준	소득 하	205	4.15	3.88	4.09	4.03
	소득 중	299	3.99	3.81	3.95	3.98
	소득 상	165	3.92	3.82	3.84	3.9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4	3.96	3.98	3.99	4.06
	초대졸	82	3.88	3.76	3.82	4.06
	4년제 대학 졸	460	4.04	3.81	3.98	3.94
	대학원 졸업	27	4.33	4.04	4.11	4.00
	잘 모르겠음	6	3.83	3.50	4.00	4.17

* 비교: 1점 '매우 반대한다', 2점 '약간 반대한다', 3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4점 '약간 찬성한다', 5점 '매우 찬성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취업(3.38점) 또는 취업준비(3.39점) 측면보다 정서적 안정(3.98점)이나 자신에 대한 이해(3.9점)와 같은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업 이후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후관리에 대한 욕구 수준에 비해 실제 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3.71점)나 사후관리(3.5점)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며, 사업과 관련한 타 요인(기관: 4.09점, 인력: 4.05점, 프로그램: 4.04점 등)과 비교해도 낮았다.

셋째,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 초반과 사회 경험이 있는 30대 초반의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특히 사업 참여경로와 지원 내용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두드러졌다.

넷째, 사업 참여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은 사업 참여 이전 비구직 상태였던 청년들이 39.92%로 참여 이전 일을 했던 청년들(30.54%)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사유에서도 몰라서(31.88%)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 참여 이전에 일(18.27%) 또는 구직(17.27%) 상태였던 청년들 보다 13%p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상이한 특성을 보였다.

다섯째, 청년도전사업 참여 전후 경제활동 상태는 일(24.96% → 60.54%), 구직활동(36.47% → 19.13%), 비구직(38.57% → 20.33%)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다만, 니트상태 지속기간에 대해 비구직 니트 청년은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 중 1명꼴로 높게 나타나 상태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15.8%는 외출을 잘 하지 않지 않는 상태였으며, 특히 비구직 니트 청년은 20% 이상이 외출 빈도가 낮아 사회와 단절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참여자들은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와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참여 허용, 참여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과 같은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참여기간과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되는 입장이 공존했다. 특히 단순히 참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2.73점).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참여자들의 심리정서나 경제활동 의욕 고취, 나아가서는 노동시장 진입 등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드러낸다. 다만,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더해져야 할 것이며, 청년집단 내에서도 연령, 심리 정서적 상태, 비경제활동 상태의 지속기간 등에 따라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반해 보다 세분화된 지원 내용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업 참여기간을 늘리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형태의 개선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며, 유연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서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제Ⅳ장 면접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2. 연구방법
- 3. 면접 분석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이 장에서는 양적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와 특성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를 하기 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같은 니트 청년 대상 사업 참여자들과 실무자들은 이 사업을 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마도 청년의 상태가 질적인 변화로는 드러날 수 있지만, 양적인 변화, 특히 취업률과 같은 성과로는 나타내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니트 청년 사업들이 쉽게 출발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취업률을 성과로 내세우는 순간 니트 청년 사업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취업률을 뒤로하고, 실제 질적으로 나타나는 청년들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번 면접조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관계가 점차 단절되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무언가 해야 할 과업과 역할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면접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방향에서 면담을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참여자 모집 방법

이번 면접조사는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2021년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 설문 종료 시 ‘면접조사 참여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진이 참여자들의 지역 특성과 응답 특성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였고, 조사업체에서 이 중 13명을 섭외하여 2022년 8월~9월 사이 줌(Zoom)을 통한 1:1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종사자 모집은 21년 실무자 및 관리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연구자가 8명을 연락하여 섭외하였고, 줌을 통해 비대면 인터뷰를 초점집단면접(FGI)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와 분석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2) 면접내용

(1) 청년 당사자 면접 질문 프레임

청년 당사자 면접에서는 2021년 사업 참여 이전 주로 니트 상태였던 참여자들이 시간 순(사업 참여 이전, 참여 당시, 참여 이후, 현재 상태 등)으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청년 당사자 면접 프레임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사업 참여 이전 상태	• 니트 상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면담
사업 참여 경험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 동기 및 기대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 경험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만족 및 불만족 경험
사업 종료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것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얻었어야 하는 것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 참여자 유인을 위한 방안 • 참여자 변화를 위한 방안 • 변화된 사업에 대한 평가 • 니트 상태 변화를 위한 제언

(2) 청년도전지원사업 종사자 면접 질문 프레임

청년도전지원사업 종사자 면접은 실무자와 관리자 그룹으로 나누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행정을 담당하는 종사자와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와의 특성이 다를 것이라 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은 주로 단기 계약직 형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 역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종사자 초점집단면접(FGI) 프레임은 다음과 같다.

표 IV-2.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초점집단면접(FGI) 질문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사업 참여 전 주요 경력	실무자로서의 직무 경험 및 주요 경력
사업에 대한 준비 및 기대	- 실무자로서 사업 시행 전 준비사항 및 기대 - 사업 참여 이후 기대 달성 정도
사업 참여의 어려움과 보람	- 고용과 복지를 결합한 사업으로서의 어려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운영자로서 목격한 청년의 변화
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	- 운영 기관 차원에서의 사업 개선 방안 - 청년 도전기회 증진 및 권익보호 차원에서의 사업 개선 방안

3) 분석방법

이번 면접조사에서 청년 당사자 면접의 주요 질문은 참여 경험에 대한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개인의 내적 심리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 성과 인식, 개선의견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보고하였다.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지만 결과 보고는 사업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분석은 연구자가 스크립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개념과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분석을 보조하는 도구로 질적연구 프로그램인 Nvivo를 활용하였다.

4) 참여자 특성

이번 면접에서는 총 21명의 청년 당사자와 운영기관 종사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 청년 당사자 응답 특성

순서	ID	연령(만나이)	성별	참여지역	학력
1	AY	27	여성	충청권	4년제 대학 졸업
2	BY	32	남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3	CY	31	남성	경상권	4년제 대학 졸업
4	DY	27	여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5	EY	34	여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6	FY	27	여성	경상권	4년제 대학 졸업
7	GY	26	여성	경상권	4년제 대학 졸업
8	HY	28	여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9	IY	31	남성	경상권	고등학교 졸업
10	JY	29	남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11	KY	28	여성	전라권	4년제 대학 졸업
12	LY	24	여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13	MY	34	남성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

표 IV-4.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종사자 응답 특성

순서	이름	연령(만나이)	성별	직위	지역
1	AW	27	남성	실무자	수도권
2	BW	25	남성	실무자	충청권
3	CW	28	남성	실무자	수도권
4	DW	28	남성	실무자	경상권
5	EW	39	남성	관리자	충청권
6	FW	32	남성	관리자	수도권
7	GW	34	남성	관리자	수도권
8	HW	31	여성	관리자	경상권

3. 면접 분석 결과

1) 청년 당사자 면접

청년 당사자들은 연구자들과 자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 변화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이 연구가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것을 요청받았다. 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들의 상태

설문 결과를 보면 참여자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나 사회적 고립 수준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오랜 니트 상태를 경험한 일부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외부와 교류를 잘 하지 않았던 상태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관계의 단절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니트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협소해지는 것을 느끼고, 외부와 교류를 줄여간다고 이야기하였다. 몇몇 청년들은 자신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단절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냥 그러니까 저도 모임이나 결혼식 이런 거에 편하게 가려면 저도 자리를 잡고 갈 형편도 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자꾸 취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가기가 되게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BY, 32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런 교류가 없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내가 약간 고립이 되었느냐는 생각은 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고립됐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청년 사이트에 서 고립 청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EY, 34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취업 준비하는 거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하여 있는데 저만 안 된 거니까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괜히 고민만 털어놔 봤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돈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계속 친구들 만나고 즐기고 다 즐기면 취업도 못 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모이자 이러면 난 어려워 취업 준비 중이야 라고 말을 해서 일부러 끊어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제가 어떤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안 풀린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기분 전환해야 하나 싶으면 카페에 그냥 잠깐 앉아 있다 오는 정도 그 정도 외출. 그거 이외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없는 정도입니다.” (JY, 29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무기력

단절과 고립은 무기력을 낳는다. 한 청년은 집에서 쉬다 보니 우울증이 왔었고 이로 인해서 무기력해졌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가 원래 일하고 있던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제가 거기에서 진짜 오랫동안 일했었는데 사장님한테 그냥 그때 이사도 해야 했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만둔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그냥 되게 무기력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저축해도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계속 쉬면서 약간 조금 우울증이 왔다고 그래야 하나 그런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에서는 활력 정도가 높은 청년들도 있었던 반면 스스로 히키코 모리(은둔하는 사람)로 지칭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연히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경험의 주요 특성

2021년 정부 대책 이후 조속히 도입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모두에게 낯선 프로그램이었다. 표준화가 덜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들은 청년들에게 때로는 장점으로 때로는 단점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 처음 접하는 청년정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의 니트 상태(구직단념상태)를 유지한 청년에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사용하고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소득제한이 없어 처음 접한 청년정책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하였다.

“소득 기준은 별로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짜 계속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해보려고 카드도 발급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일단 지금은 아직 준비 중이고 학생이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진짜 준비하기에는 가뜰이나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까지 해가면서 투자하게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조금 그렇고. 그거 말고는 진짜 안 돼 있고 소득 기준 따지고 해도 친구들이 아니 도대체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진짜 부모가 실제로는 부모가 같이 살지도 않고 돈을 보내주지도 않지만 왜 재산만 그렇게 다 계신데도 도대체 그런 청년 주거 지원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며 주변 토박이 중에 그런 주거 지원 받는 그런 혜택을 받는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에 어색해하는 청년들도 있었으나 서서히 적응되어 갔다고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원지 모르고 신청하긴 했는데 상담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상담 경험도 없고 이렇게 모르는 분이라 막 그렇게 갑자기 해야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웠는데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BY, 32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방 밖으로 나가기

니트 상태가 오래 지속된 청년들은 고립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 사업을 통해 방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진짜 밖으로 나가면서 환기도 많이 됐던 것 같고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니깐 환기는 확실히 됐던 것 같아요.” (DY, 27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가볍게 참여하여 잡생각을 잊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잠시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잡생각 혹은 부정적 생각을 잠시 잊게 하기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일정한 하루 일과가 사라졌던 니트 청년들에게 방 밖으로 잠시 나와서 새로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사업 참여의 이점이다.

“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사업은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긴 것 같지만 너무 짧아서 그 당시에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수많은 직업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뒤늦게 그런 거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뒤늦게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청소년기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는 이거 해야 한다 이런신 분들보다도 아직까지는 스스로 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으므로 거기 대부분 그분들도 보면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하다 오신 분들도 있었고 토목 관련 건축 관련 자동차 계열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다 오신 분들도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해보니까 힘들었고 이걸 나랑 맞지 않았다. 그런데 그거 수준에 맞춰서 수업하기에도 너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걸 경험하시고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수준이 떨어졌고, 이미 대학교를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학생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포괄적인 것 같고 그러더라.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그런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취업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고 진로 쪽도 잘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느 거가 내가 좋아하는 걸까 어떤 직업을 골라야 할까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거 동화책 읽는 거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하니까 제 잡생각이라든지 스트레스 같은 게 조금 생각이 안 났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조금 더 제 진로를 찾는다가나 다양한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다가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아무래도 그런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는 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한 안정

이 사업은 단지 청년들에게 특정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본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자신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위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교류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심리적으로 그럴 기회가 아예 코로나였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처지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BY, 32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그래도 거기서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대면하는 수업을 했을 때도 약간 저 사람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런 모습 진짜 많이 보였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지 하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뭔가 제가 관심 뭔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에 비해 뭔가 아쉬웠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거를 조금씩 짧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영향받고 스스로 약간 객관화하는 시간도 조금씩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DY, 27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일단 혼자인 것보다 집단이니까 다른 분들도 막 오고 다른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분들도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들 저렇게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한다는 거를 보고 뭔가 본받을 점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그냥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좋은 정보를 배우고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GY, 26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랑 같은 처지인 같이 지원하신 분들이랑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뭔가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중략) 뭔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고 취업 준비생들이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그때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시기여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분들이 자기감정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 데 저도 공감이 많이 되었고 오랜만에 깊은 속마음의 얘기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HY, 28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취업에 대한 압박이 없는 프로그램

‘취업 알선’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특성상 종사자들이 청년들에게 취업처를 알선해 주고 인지시켜주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전 단계로서 취업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다. 이 사업에서 취업/진로 프로그램의 강화는 하나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취업을 알선하지 않음으로써 종사자들과의 관계나 프로그램 참여가 편안해지는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취업 알선을 하지 않음으로써 참여자들과 긴장 관계에 놓이지 않는 점은 직업상담사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저한테는 취업에 대한 압박을 많이 풀어주고 힐링이 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CY, 31세, 남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3)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기분 환기, 자신감의 증진, 활력 부여 및 활성화,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등이었다.

○ 마음의 안정과 기분 환기

청년의 목소리로 전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주요한 성과는 마음의 안정과 기분의 환기이다. 이는 취업과 같은 양적 목표와는 다른 차원의 개인 내적인 변화일 수 있으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취업에서 오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았고, 이로 인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낙담하고 있는 니트 청년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 처지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또 그런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하려고 하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힘든 상황이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도 받고, 또 선생님들도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직장 이런 데서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 인간적으로 이렇게 치유해주시는 듯한 그런 걸 받아서. 저도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하는 의지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BY, 32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그런 자괴감이나 실의에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취업이 길어지다 보면 생활비도 약간 쪼들릴 때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약간 성인들이랑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거든요.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성인들이랑 몇 주 동안이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도 사람들이랑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받으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안정이 되고 이런 것도 재미있네. 하면서 다른 거에 대한 의욕도 생겨나는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그런 약간의 생활비도 아주 큰 메리트였지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아무래도 취업을 못 한 사람한테는 그런 식비나 이런 것도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통해서 스테디캐퍼라도 하나 끊어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FY, 34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
전지원사업 참여자)**

참여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진로와 취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하지만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전환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대해서 상담하고 무기력할 때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장점인 것 같아요.” **(HY, 28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는 상담을 대학생 때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고민을 최대한 많이 풀어놓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털어놓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개인적인 것들은 한 그레도 10개 중에 두 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들어주시는 시간이 더 많았고, 저도 워낙 편하게 일단 다 말해보고 나서 정리가 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예 걱정하고 다 솔직하게 말을 해놓는 편이라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JY, 29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약간 미술 심리 치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수업이 원래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었는데 사정상 그때 비대면으로 바꿨는데 되게 엄청나게 힐링 되고 약간 사람 거기 약간 상처받은 사람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들 자기 얘기하면서 되게 약간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어요.”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제가 어떤 류의 일을 선호하는지 그냥 어떤 식의 방식을 선호하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하기 전에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분석적이고 개발하는데 좋은 성격인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얻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그때 한 번 방문을 청년**으로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그렸던 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초등학교 어릴 때 미술 시간을 제일 좋아했는데 크면서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런 미술 그림 그리거나 뭘 만들거나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재미있고 또 앞에서 알려주시니까 오랜만에 학교 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날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HY, 28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그림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한 행사처럼 즐기는 정도.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림을 그려보는 제가 했던 거는 마카로 일러스트 배우는 거랑 노무사 관련된 상담들. 노무사 관련된 직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행사들 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도움이 많이 됐고 개별적으로 커리어 준비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무엇을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꼬집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림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잠시 휴식하는 것처럼 자기 개인적인 휴식을 어떻게 보낼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도전해볼 생각도 없었는데 아왕 프로그램 있는 거 한번 가볍게 해보자면서 하나의 경험 즐기다 오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큰 도움은 아니지만 괜찮았습니다.” **(JY, 29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활력 부여 및 활성화(activation)

이를 통한 활력부여 및 활성화도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점이다. 여기서 활력 부여는 청년들이 다시 효능감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활성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활성 상태를 벗어나 취업이나 진로를 위하여 자격증 준비, 취업 준비 등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스포츠 연습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사람 만나기 두려운 상태였는데 그래도 교류가 없었던 부분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강사님이라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제가 바뀌는 모습을 스스로 느껴서 저는 저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초반에 원했던 그래서 활기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백수인 상황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도 계시고 의욕 자체도 되게 많이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었는데 그걸 시작하게 되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자기 계획을 설명하니까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보통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 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니까 생각 정리도 많이 되고” (JY, 29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무도 지인들 말고는 친구나 가족들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사람에게 상담 받으면서 조언도 얻고 누군가를 만나고 나니까 용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좌절감도 많고 우울증처럼 불면증으로 몇 달 고생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지지 받아서 용기가 많이 생겼다는 게 활력이 생겼다는 게 가장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JY, 29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지금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집에서 취업 준비만 하다 보면 혼자 말할 사람도 별로 없고 집에서 집에서만 있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텐데 그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취업 준비생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뭔가 의욕이 생기게 되고 명확해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힘들 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HY, 28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청년들은 같은 이전과 같은 미취업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비해 자신에게 변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진로에 대한 설정과 준비가 막연했었지만 이 사업을 통하여 진로를 설정하고 이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미취업 상태라고 할지라도 청년들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도(readiness)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미취업 상태라 하더라도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장 그분들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스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만약에 확실한 근거, 학원을 새로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서 다른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왔다면 그래도 취업하려고 가는 한 걸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참여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하루의 루틴이 생겨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하였다.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것이 참여로 인해 생긴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일어나서 바로바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걸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솔직히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해도 항상 다들 출근 시간보다는 늦게 일어나지고 그래서 거기서도 여쭙보셨을 때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서로 오늘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끝났는데, 그중에서도 전부 다 원래는 부지런하게 행동 부지런해져야지 하면서도 맨날 늦게 일어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며칠 동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무언가를 하고 뭔가를 또다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지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GY, 26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청년들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본 사업의 취업,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 약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력서 작성 등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이직자들에게는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새로운 것을 배웠고 일자리를 구할 때 실제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ppt로 자소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어떤 자소서가 이렇게 딱딱 잘 들어오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였는데 되게 꼼꼼하게 알려주셨고 평소에 그냥 자소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요즘 자소서도 신청을 돈을 내고 신청해서 따로 첨삭 받는 그런 것 그런 것도 많이 그냥 굳이 그런 걸 안 들어도 내가 이걸 보고 내 경험을 살려서 적을 수 있게끔 뭔가 잘 알려주셔서 좋았어요.” **(GY, 26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그냥 써보라고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발표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예시 짧은 스피치는 서론 본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만 예시만 진짜 잠깐 간단하게 보여주시고, 그냥 바로 피드백을 받고 정말 이걸 돈 주고 볼 수 없는 명강의다 싶은 정도.”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두 시간은 활동적인 거 하면 2시간은 이론적인 자소서 쓰는 방법이나 그런 걸 했었는데 뭔가 활동적인 거는 달력 만들기 그런 거도 하고 그 달력에도 자기가 매번 달력을 볼 때마다 좋은 문구를 적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걸 하면서도 뭔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자소서 나 면접 잘 보는 방법 이런 것도 동영상 이용해서 알려주셔서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GY, 26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는 엄청 좋았고 아침부터 가서 하는 건데 그냥 뭔가 되게 다양한 활동이나 약간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마음 많이 헤아려주려고 하고 도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자소서 적는 거나 면접 보는 거나 그냥 심리적인 안정 그런 찾는 법이나 그런 거를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았어요.” **(GY, 26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의견을 더 많이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사업의 개선의견 파트에서 다루었다.

○ 고립의 완화

이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니트 청년(구직단념청년)들은 사회와의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가는 과정 안에 있다. 앞서 다룬 것처럼 이들 중 고립감과 외로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집 밖으로 청년들을 끄집어내고 이들의 고립도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단, 이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조사를 설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질 뿐이다.

“무엇보다 일주일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도 계속 집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 2회라든지 3회를 해서 중간에 나가면 좋지만 계속 와서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늘려도.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높으면 그 예산만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업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구체화는 못 하겠지만 뭔가 변화는 있었다고는 느껴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하길 잘했다. 약간 그런 느낌.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진짜 달라졌어’ 이런 거는 아닌데...(중략) 약간 내어놓고 솔직한 말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딱 정확히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IY, 31세, 남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4)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선방안

청년들이 전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같은 질적 측면, 다양성과 같은 양적 측면, 기간 등 운영 측면 등 다양하였다. 여기서는 청년들의 의견을 되도록 세부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 상담 전문성 증진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의 상담 서비스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기도 하고 사업 매니저가 진행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초기 사정과 같은 가벼운 상담은 실무자들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를 느끼지 않았으나, 집단상담과 심리상담 등에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딱 상담 관련 학과 4년제 나오신 분이 맡았었거든요. 아쉽지요. 그냥 학생분들이 소통하기 편해도 조금 더 저보다 선배분들이나 어른분들께서 조금 더 숙련되신 분들이 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냥 한 번 실패를 겪고 온 친구들이잖아요.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두리몽실하고 너무 공감만 해 주는 방금 졸업하시는 그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집단 상담이었는데 약간 초반 상담자랑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랑 라포트를 형성을 해서 개인적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초반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인생에 힘든 점이 뭐냐. 힘든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되게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얘기해야 하겠고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얘기해야 하나 이런 상태로 상황이 지속돼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상담에 대해서 그 후기를 말하라고 했을 때 그런 점을 얘기했더니 되게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은 못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저는 집단 상담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원래 집단 상담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너무 조금 마음을 열라고 막 계속하니까 오히려 더 약간 막이 생기는 느낌 그랬어요.” **(EY, 34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커뮤니티 형성 지원

커뮤니티 형성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청년들에게는 큰 욕구가 있는 부분이었고, 커뮤니티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다.

“수업에서만 레크레이션 같은 수업이 있더라고요. 거의 마지막 주에 그때만 서로 자기소개하고 나이나 이런 거 하고 그거 말고는 번호 교환이라든지 추후에 만나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참여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같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럼 그리고 저 때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만나고 끊기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 **(BY, 32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는 교류를 기대했어요. 사실 같은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들어보니까 비슷한 진로를 선택한 분들도 있고 조금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존경스럽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 센터에 찾아가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못했어요.” **(EY, 34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불만이었던 점이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거기 주최 측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되었다 하면서 그 당일날에 갑자기 현장 체험 학습 같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비대면으로 바뀌거나 하는 일이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물론 코로나 상황은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게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친해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집단 프로그램은 운영하였던 한 기관 사례에서는 커뮤니티 형성이 참여자의 만족과 참여에 꽤 괜찮은 성과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지지와 격려를 받아 다시 기분이 전환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무료한 일상에 교류할 수 있는 타인이 생겨나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에서 필요한 긍정적 교류와 지지체계로서 기능하는 것이 커뮤니티 생성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커뮤니티의 역동을 실무자가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것이 또다른 과업으로 작용하여 업무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 취업/진로 서비스의 질 향상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취업과 진로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취업처를 알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 진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바라는 청년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펙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엄청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몰랐던 정보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게 어쨌든 진짜 취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어쨌든 청년들이 다 취업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BY, 32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다 받아 적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쓸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소서에는 첨삭을 해줬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설명만 해주시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첨삭 같은 걸 받을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어요.” (HY, 28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다양화 개선

니트 청년들은 빡빡한 프로그램 운영을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수까지 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금 대면 접촉을 조금 저는 완전 줌으로 해서 대면 접촉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출석이 너무 이렇게 오랜 기간 거의 이거에 몰빵 해야 할 만큼 빡빡했기에 스케줄이 조금 그거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BY, 32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도움 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아쉬웠던 게 MBTI 제가 아까 말씀 드린 MBTI 하면서 괜찮은 직종 말씀해 주실 때 뭐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딱 이걸로 도전해 보아지 이것을 해보아지 하면서 해야 됐는데 그냥 뭔가 크게 와 닿았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배부른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막 크게 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중략). 직업에 대한 뭔가 다양성이 아쉬웠다. 종류가 아쉬웠다. 다른 그런데 그 직업을 설명해 주신 건 굉장히 좋고 그것도 그거랑 아예 또 저희 예체능도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좋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예체능 계열도 관련된 직업을 더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DY, 27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는 약간 계획적인 사람이어서 만약에 처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전체 개요를 받았다면 제가 처음에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제가 참여할 당시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이름 안에서 어떤 거를 한다. 어떤 게 중점이다. 이런 프로그램 이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약간 개요가 없으면 오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약간 동기 유발이 덜 된다 그랬나? 그래서 그런 개요가 조금 있었으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사후관리 개선

이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연계는 정보연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실제적인 연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 기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으로 이 역할을 미루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후 사후관리를 바라는 청년들이 있었으나 전화나 문자 연락 등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거기서 아예 설명해 주세요. 추후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3개월 정도까지만 관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내냐는 식의 문자만 카톡으로 왔지요. 그런 거밖에 없고 없었어요. 그냥 지금도 계속 공부하시나 뭐 있냐? 이거 있으면 참여해 달라, 이런 거 정도 그 정도는 조금.”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책임져줄 줄 알았거든요. 그 러니까 거기서 바로 알선해 주고 지원도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저는 또 가게 되니까 섭섭했다. 그랬던 게 있었더라고... (중략) 저는 국가에서 뭐라고 하지 시에서 *****에서 거기서 제대로 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해주고 그런 건가 했는데 위탁 업체가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하청업체 느낌이 나는 그런 데를 그러니까. 제가 학원 다니면서도 국민 취업 지원제도 다른 분들 소개해주고 하고 하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랬는데도 별로더라고요. 제가 받은 위탁 업체라야 하나 다른 분들은 노동청 가서 직접 하던데 많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CY, 31세, 남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는 왜냐하면 그때 설명 같은 걸 읽을 때 나중에 국취제랑 연계해서 취업 지원도 해준다.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국취제를 미리 신청을 해뒀도 해냈었다더라 그래도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 수강생들한테 그런데 왜 이거 수료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지 그냥 이런 당황스러운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는 청년 도전 사업한 거를 굉장히 만족하지만 되게 그 부분에 아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 저한테 전화하시고 약간 전화해서 안부 전화라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그래도 저는 더 마음이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한 번 기수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지난 기수다 보니까 조금 현재 기수만 신경을 쓰고 한 번 했던 수료하신 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후 관리가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관리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얘기하면서 정도 들었는데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면 아쉽기도 하고, 또 뭔가 취업 연계 같은 걸 해줄 수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채용 공고나 그런 거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HY, 28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기간연장 고려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간연장이다. 닛트 청년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은 1달보다는 더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청년들은 사업 기간이 단순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기간 연장은 모든 참여자가 아닌 선호하는 참여자, 욕구가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하시니까 5개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취업이 오래 걸릴 거로 생각하니까 일단 5개월보다 뒤에 말씀하신 국채 그걸 조금 몇 개월을 한 1~2개월 늘려서 5개월 7개월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이 빨리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CY, 31세, 남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한 6개월 정도 기준이면 하다가 중도에 나갈 수도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주일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도 계속 집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 2회라든지 3회를 해서 중간에 나가면 좋지만 계속 와서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늘려도.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아마 그렇게 해서 성공률이 높으면 그 예산만큼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6개월이 너무 길면 3개월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실 기간이 거의 그래도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 달이 조금 짧게 느껴져서 다른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받는 돈을 도전 지원금을 차라리 줄이고 한 달을 더 이렇게 물론 또 그쪽에서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거를 줄이고 한두 달 정도 최소화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만에 뭔가 다 얻어가고 다 아웃풋을 내기에는 조금은 기간이 아쉽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마지막에 저희한테 주는 그 도전 지원금 그거를 줄이고 저희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게 어차피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긴 했어요.” **(DY, 27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저는 한 달 조금 안 되게 20일 정도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쉽다고 많이 느껴져서 원래는 기간이 짧아서 좋아서 참여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한두 달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간을 늘리는 게 더 좋아요.” **(FY, 27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뭐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약간 지원금 때문에 저는 약간 한 게 있거든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 더 늘리게 된다면 제가 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 약간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가 싶고요. 길게 한다면 몇 퍼센트는 채워야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IY, 31세, 남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기타 (직무체험)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직무체험을 하고 진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하였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가 프로그램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지금 상황으로는 뭔가 저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어서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냥 해보고 싶은 그런 직무에 그런 직무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잠깐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든지 경험을 해보아지 내가 한번 부딪혀보아지 알 수 있는 거라서, 가능하면요.” **(GY, 26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조금 더 인력은 많이 들어갈지라도 어쨌든 3, 4주를 그 친구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턴보다는 3, 4주 지켜본 인턴으로 뽑는 친구가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AY, 27세, 여성, 충청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2) 운영기관 종사자(실무자, 관리자) 면담

청년 면담은 줌을 이용한 1:1 면담으로 진행된 반면 종사자 면담은 줌을 활용한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진행되었다. 자유로운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매니저와 같은 실무자 집단과 센터장과 같은 관리자 집단을 구분하여 면담하였다. 종사자 면담은 청년 참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였으나, 종사자들 역시 이 사업의 참여자로서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종사자들의 제안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실무자의 고용 안정

종사자들은 본 사업이 단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실무자들이 계약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미계약 기간 동안의 고용 불안이 여러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이 기간을 ‘빙하기’라고 표현하였는데,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이 기간 동안의 고용 안정에 대해 많은 개선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운영기관 입장에서라도 경력이 있는 실무자들이 다년도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사업하고 올해 이제 이 오면서 말씀해 주신 빙하기가 있었고 그냥 저희는 그래서 인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좀 무급휴가 형태로 잠시 그 일을 아예 그냥 고용은 거기까지만 하고 대신 추후에 저희가 사업 수주하게 되면 바로 고용 가능한 전부터 고용을 할 테니 잠시 휴직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고용상으로 해지했다. 다시 재고용 하는 게 맞지요? 서류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AW, 27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 사후관리 개선

실무자들의 짧은 계약기간은 청년 참여자들의 사후관리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지침상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에 계약이 만료되어 사후관리를 수행할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업 운영의 불안정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에도, 참여 청년들에게도 여러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후 관리에서 한계가 생긴다는 점, 12월에 수료하게 된 분들도 원래 원칙상으로는 3개월 동안 사후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지만 모든 실무자분들이 12월에 계약 종료가 되면서 그분들에게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때 수료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BW, 25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 서비스 전문성 개선 및 연계 기능 강화

실무자들 역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심리 상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서비스가 어려운 대상들이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자들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저는 사실 참여자 분들도 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진짜 완전 니트족에 가까운 완전 고립 청년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되게 활동적인데 저희는 저희 은평 오랑 프로그램은 약간 커뮤니티형 소통하는 체험 형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지요. 완전 성향이 극과 극이에요. 완전 활발하신 분들 계시고 좀 저기압이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전문 사회복지 전공한 것도 아니고 심리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전공은 경영 전공은 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할 때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문적으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참여자 분들한테도 좋고, 약간 알쏭달쏭할 때가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올해는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CW, 28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저는 약간 이분들이 좀 튀는 분들은 아닌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상담 자리에 자발적으로 오신다는 뜻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신청해도 상담 때는 좀 비자발적으로 반응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오히려 더 상담할 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BW, 25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 청년을 기다려주는 프로그램 운영 (이수까지의 기간 연장 혹은 유연화)

실무자들은 현재와 같이 일정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을 중도 탈락시키는 것은 니트 청년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들은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이수하여 작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유연한 접근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저희 사실 저희가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약간 니트성이 있고 구직 단념 청년이라면 6주 안에 저희 쪽으로 향상 못 오시고 조금 뒤쳐지는 분이 계속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냥 중도 탈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꼭 그렇게까지 기간을 한정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HW, 31세, 여성, 경상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 신생 기관을 위한 운영 노하우의 공유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신생 기간이 운영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여 결국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일했던 친구가 두 명이나 재취업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나 저희가 구축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게 강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청주도 그렇고 대전 두 곳도 그렇고 인성 기관에서는 처음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똑같은 숙제, 똑같은 고민들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들에게 숙제가 됩니다. 기관은 더욱더 확대하려고 할 것이고 인원도 더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사람들을 서로서로 공유를 해서 빠르게 안착시켜주는 것도 기존에 해왔던 기관의 역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관들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도 그랬고 작년에 14개, 올해 28개로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지역에 있는 특성이 유사한 기관, 강원도면 강원도, 충청도면 충청도의 다 특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들이 빨리 업무 공조를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기관보다 첫 번째 하는 기관의 어려움을 좀 더 많이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BW, 25세, 남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 강사 인력풀의 공유

수도권에서는 강사 인력 풀이 풍부하고 자원 인력까지 구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청년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강사 인력 풀을 구성하여 공유하거나, 지방에서 구하기 어려운 강사들은 중앙에서 섭외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도 제기되었다.

“사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인력들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저희 강사비만으로도 인력을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수의 인원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오시는 참여자 분들께도 만족감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정해진 프로그램을 딱 짜서 이 프로그램대로 참여자들을 저희가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방의 강사풀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이라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수업 같은 건 강사 풀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그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HW, 31세, 여성, 수도권 청년도전지원사업 실무자)

4.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청년 당사자 면접과 운영기관 종사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년 면담은 사업 참여 이전의 상태, 사업 참여 경험의 특성, 사업 참여의 성과, 개선방안으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 참여 이전의 상태는 청년들이 니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고립되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업 참여 경험의 특성은 청년들이 처음 접하는 청년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방 밖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청년들은 가볍게 사업에 참여하여 잡생각을 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안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취업에 대한 압박이 없는 것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셋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를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리하면 마음의 안정과 기분 환기, 활력 부여 및 활성화,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고립의 완화 등이 있었다. 넷째, 개선방안은 상담 전문성 증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취업/진로 서비스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다양화 개선, 국민취업지

원제도 연계 및 사후관리 개선, 기간연장 고려 등이었다.

운영기관 종사자 면담은 주로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였고, 실무자의 고용 안정, 사후관리 개선, 서비스 전문성 개선 및 연계 기능 강화, 청년을 기다려주는 프로그램 운영, 신생 기관을 위한 운영 노하우 공유, 강사 인력풀의 공유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년들은 이 사업이 취업 프로그램 이전의 리프레시, 힐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기분 전환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본 사업이 취업알선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을 향상시켜 직접적으로 취업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되, 자연스럽게 취업과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취업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확인하는 기재를 도입할 경우 종사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 관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들은 참여 기간 연장에 대한 다양한 선호가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으로 본 사업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객관적 지표로 이들을 구분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선호와 상담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종사자들은 다년차 사업으로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무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Ⅴ장 정책 제언

- 1. 연구요약
- 2. 정책제언

1. 연구요약

1) 보고서 내용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작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 사업이 참여 청년들에게 미친 영향 및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전문가 자문, 포럼 개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심리정서적 측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사업 참여 전후 경제활동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사업 참여 이후 3명 중 1명 이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참여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년집단 내에서도 연령, 심리정서적 상태, 비경제활동 상태의 지속기간 등에 따라 이질성이 존재했다.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 초반과 사회 경험이 있는 30대 초반의 경우 특히 사업 참여경로와 지원 내용에 대해 다른 응답 양상을 보였다. 사업 참여 이전 비구직 상태였던 청년들은 일 또는 구직 상태였던 청년들에 비해 ‘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비구직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의 2명 중 1명은 니트 상태 지속기간에 대해서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의존성을 보였다. 더구나 비구직 니트 청년의 경우 20% 이상이 외출 빈도가 낮아 사회와 단절될 위험이 높았다. 셋째,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와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재참여 허용, 참여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과 같은 사업 개선방안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참여기간과 관련해서는 다소 상반되는 입장이 공존했다. 특히 단순히 참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질적 면담 결과는 청년 면담과 종사자 면담 등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먼저 청년 면담은 사업 참여 이전의 상태, 사업 참여 경험의 특성, 사업 참여의 성과, 개선방안으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업 참여 이전의 상태는 청년들이 니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고립되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사업 참여 경험의 특성은 청년들이 처음 접하는 청년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방 밖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청년들은 가볍게 사업에 참여하여 잡생각을 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안정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취업에 대한 압박이 없는 것이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셋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를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리하면 마음의 안정과 기분 환기, 활력 부여 및 활성화, 취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고립의 완화 등이 있었다. 넷째, 청년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상담 전문성 증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취업/진로 서비스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다양화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사후관리 개선, 기간연장 고려 등이었다. 운영기관 종사자들은 주로 실무자의 고용 안정, 사후관리 개선, 서비스 전문성 개선 및 연계 기능 강화, 청년을 기다려주는 프로그램 운영, 신생 기관을 위한 운영 노하우 공유, 강사 인력풀의 공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과 요약

(1) 사업 참여 이후 니트 상태를 벗어나거나 활성화(activation)되는 경향이 있음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비구직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데이터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데이터에서는 사업 참여자의 22%가 취업자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50% 이상이 취업자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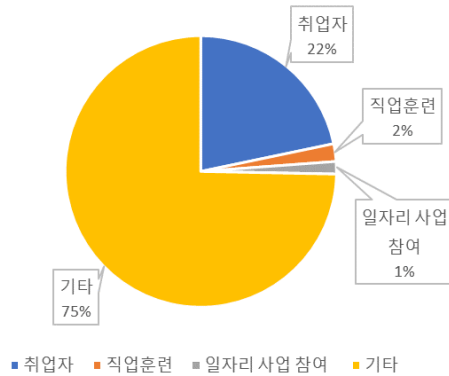


그림 V-1.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의 2022년 현재의 상황

이와 같은 활성화는 질적연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면담조사에서는 반복된 취업 실패로 구직 단념한 청년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든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소극적이거나 정적인 상태에서 적극적이고 동적인 상태로 변화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취업을 못하더라도 참여자의 상태가 자격증 취득, 학원·훈련 수강,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활성화가 목격된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연계가 일부 이루어졌음

설문조사 응답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비율은 약 37%였으며, 이는 행정데이터에서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연계 시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직 의욕이 높아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는 제도로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일정 기간 내 연계 및 참여 보장(guarantee)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반 청년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3) 사업 시행 이후에도 사업운영을 맡은 청년센터 등 기관이 지역자원 및 청년정책으로의 연계 기능을 함

일부 청년들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정책 서비스로 첫 진입을 하고, 기관 이용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들은 사업을 수행한 청년 센터 및 실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련 자원을 검색하는 등 청년 정책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변인들에게 사업을 추천하는 등 사업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 거주 청년들은 지역의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 사업을 처음 경험하는 청년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입 과정에 소득 제한이 없이 특정 상태(구직단념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다.

4) 취업 지연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구직의욕을 향상시킴

청년들은 구직 실패 및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점차 주변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청년 실업으로 인한 고립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듣고 집단상담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해 하루 일과의 루틴이 생기므로 긍정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 보다 낫다’ 혹은 ‘해야 할 일이 생겨서 잠생각을 안 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의견과 같이 본 사업은 취업 지연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구직의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제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activation)에 초점을 둔 성과평가 방안 마련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같은 니트 사업은 취업률로만 파악할 수 없는 참여자들의 질적인 특성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심리정서적 상태 및 주관적 삶의 질 상태 등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니트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 취업 시험 준비 등 비공식 영역에서의 변화를 성과로 측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니트 유형 안에서도 경제활동 니트(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가 있고, 비경제활동 니트 중에서도 민간 학원에서 비공식적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 준비, 입사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활성화 기준을 세워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기간의 연장 및 다년도 운영 설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현재보다 참여자들을 위한 운영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4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20주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등 니트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원을 수반하고 지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단,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수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긴 걸 선호하지 않는 청년들도 존재하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기간의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간이 연장되면 관리 노력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사업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모두 합쳐 6-7개월을 넘어갈 경우 현재의 전체 사업 운영기간과 맞먹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단년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의 방식도 다년도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들의 계약 불안정을 해소하여 사업의 안정화와 역량 강화 등을 함께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니트 청년은 이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므로 단일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소위 One size doesn't fit all). 따라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도, 사회적 고립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들은 오랜 취업 준비와 고립 기간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가벼운 프로그램을 원하는 반면, 어떤 청년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이력서 작성과 같은 진로에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서비스를 원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선택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적어도 너무 경직된 프로그램 선택안과 이수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경직성을 높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특화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실무자 전문성 제고

현재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센터를 주요한 전달체계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센터의 체계가 불안정하고 인력의 질에 차이가 크므로 운영기간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증진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상담 서비스 인력 및 프로그램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전문 서비스 연계 기능(정보 연계, 직접 연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기능 강화 및 니트 청년에 대한 단계적 지원 보장

현재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간의 연계는 정보연계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기관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미인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원활한 이행(transition)을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니트 청년의 상태에 따른 단계적 지원책으로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전 고립도가 더 높은 비구직 니트 청년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 인터뷰에서 청년센터의 실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건강 상태를 지닌 참여자들에

대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장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단계로서 더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플랜과 같은 비구직 니트 청년 지원사업과 같은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그림 V-2 참조). 이것을 분리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은 숙의가 필요하다. 통합된 형태로 운영될 경우 앞서 운영 기간의 연장과 맞물려 검토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구성단계부터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의 지원을 보장(guarantee)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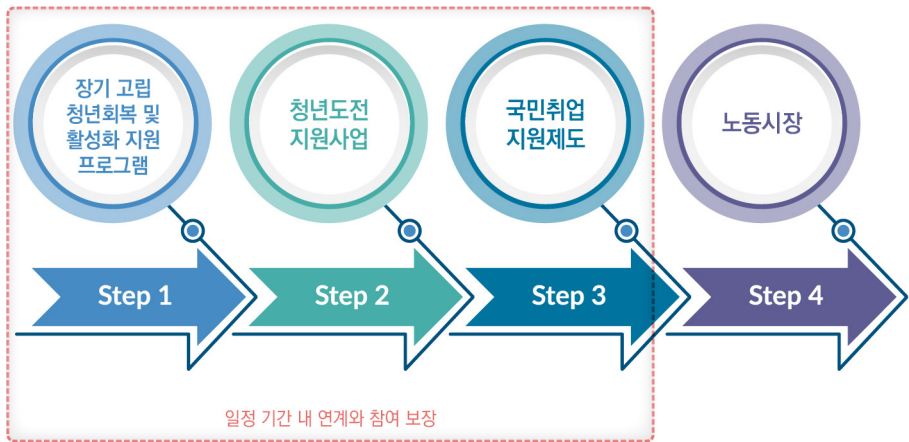


그림 V-2. 니트 청년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설계 방안

6) 고교-대학과 연계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transition)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졸업 전후의 청년들에게 본 사업을 소개함으로써 사업 참여대상자를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 시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7) 사업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으로의 연결: 청년정책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정책으로 진입하고 청년센터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본 사업과 연결된 청년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청년정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여러 청년 정책의 사례와 같이 정책수혜와 동시에 온라인 정보 채널에 등록이 되는 구조로 설계하여 사업 참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 사업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8) 청년들의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청년 지원 기초 프로그램으로의 입지 강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취업 알선을 하지 않는 기초 프로그램으로서 장점이 있으며, 청년들도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 안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의 운영기간이 늘어날 경우 취업/진로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나 취업을 알선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9) 고용/훈련/교육 정보를 통해 참여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이 사업은 고용보험 데이터와 HRD 데이터를 중심으로 취업과 훈련 정보를 취합할 수 있으나 교육부의 교육 데이터를 결합하면 특정 시기 참여자의 니트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정보는 중앙에서의 설문조사나 운영기관의 추적조사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으나, 중앙에서 참여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면 더 손쉽게 사업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 니트 청년의 규모와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훈련/교육 정보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10) 기타

(1) 커뮤니티 형성 기능 강화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욕구가 있으므로 민간기관 ‘니트 생활자’⁴⁾의 ‘니트

4) 니트생활자 홈페이지. <https://neetpeople.kr/neetcompany> 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컴퍼니' 방식을 통한 연결망형성 및 역할 부여 및 집단적 효능감 향상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한 강의식 프로그램보다는 참여자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토론수업이나 공동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참여자들의 역동을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공식적 교류와 비공식적 교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무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업무용 계정 혹은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예산 사용 및 프로그램에서의 표준화와 자율성의 균형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예산 사용이 까다로운 편이고 프로그램 운영이 표준화되어 있는 까닭에 지역 특화 사업을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지난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닛트 청년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지원기관 역량 강화 및 중앙의 서비스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신규 운영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과 같이 강사 인력풀이 빈약한 곳에 여러 인력을 연결해줄 수 있는 강사 인력풀이 필요하며, 중앙에서 비대면 강의를 통해 전문 인력을 섭외하여 지방에 있는 운영기관의 자원과 선택권을 넓혀 주는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기관의 역량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운영기관 컨설팅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1). 청년도전 지원사업 착수 워크숍 자료집.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2022a).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400267 에서 2022년 9월 20일 인출.
- 고용노동부(2022b).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정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보도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적용대상 및 가입. <https://www.ei.go.kr/> 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 고재성, 김강호, 정연순, 남기곤, 이영민, 정진철, 조성은(20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 진천: 한국고용정보원.
- 관계부처합동(2021a).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 관계부처합동(2021b).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 김기현, 김태성, 배진우(2018).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배정희, 신동훈, 박성재, 정지운, 조양진(2021).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니트생활자 홈페이지. <https://neetpeople.kr/neetcompany> 에서 2022년 9월 18일 인출.
- 여성가족부(2022). **내일이룸학교, 이 안에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가 있다!** 2022년 1월 27일 보도자료.
- 유민상, 신동훈(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발간예정).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병희, 김근주, 이승호, 성재민, 김혜원, 오민홍(2021),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립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 정진철, 이종범, 신수림(2021).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고용정보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OECD(2019). *Investing in Youth: Korea*, OECD Publishing.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 부 록

부 록

'21년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와 개선방안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본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 (044-415-2194, msyoo@nypi.re.kr)

문의: 리서치앤리서치 김한울 연구원(02-3484-3091, hukim@randr.co.kr)

* 통계법 제33조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 사업참여 이전상태

문1) 귀하는 2021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당시 어떤 경로로 본 사업을 알게 되셨습니까? (복수응답)

- ① 정부, 공공기관, 청년센터(온라인 청년센터) 등 홈페이지를 보고
- ② 온라인 광고(SNS, 커뮤니티, 블로그, 배너, 유튜브 등)를 보고
- ③ 오프라인 광고(대중교통 광고, 포스터 등)를 보고
- ④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음
- ⑤ 청년센터, 고용복지센터, 복지관으로부터 안내받음
- ⑥ 언론(신문, 인터넷 뉴스 등) 기사나 광고를 보고
- ⑦ 기타 ()

문2)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1달 전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4로 이동**
- ② 일을 하지 않았음 → **문3으로 이동**

문3)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1달 전 구직 상태이거나, 교육, 훈련을 받는 중이었습니까?

문 항	그렇다	아니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한 달 전 구직 활동(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음	①	②
(2)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한 달 전 교육(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등)을 받고 있었음	①	②
(3)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한 달 전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음	①	②

→ **문3-(1), (2), (3)에서 모두 ‘②아니다’를 선택한 경우 문3-1로 이동, 그 외는 문4로 이동**

문3-1) (문3-(1), (2), (3)에서 모두 ②번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귀하가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1달 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 훈련도 받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8)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9)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0)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1)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2)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3) 기타(적을 _____)	①	②

II. 사업참여 실태 및 만족도

문4)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정서적인 안정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이해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3) 취업 정보를 찾는 것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관련된 청년정책을 찾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준비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7) 취업을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문5)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셨을 당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문 항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 사업 명칭	①	②	③	④	⑤
(2)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	①	②	③	④	⑤
(3)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상담사, 강사 등)	①	②	③	④	⑤
(4) 청년도전지원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5) 청년도전지원사업 인센티브 금액(20만원)	①	②	③	④	⑤
(6)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①	②	③	④	⑤
(7)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종료 후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8) 청년도전지원사업 전체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였습니까?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음 ←  보통  매우 열심히 참여하였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문7)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종료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① 참여하였음
- ② 참여하지 않았음
- ③ 모르겠음

문7-1) (문7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 ② 거의 도움 되지 않음
- ③ 약간 도움 됨
- ④ 매우 도움 됨

➡ 응답 후 문8로 이동

문7-1) (문7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몰라서
- ②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
- ③ 신청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아서
- ④ 이수 후 바로 취업을 해서
- ⑤ 이수 후 바로 진학을 했거나 훈련을 받아서
- ⑥ 기타

➡ 응답 후 문8로 이동

문8)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전화를 통한 취업 정보 제공	①	②
(2) 전화를 통한 진로 상담	①	②
(3) 문자를 통한 취업 정보 제공	①	②
(4) 문자를 통한 기타 정보 안내	①	②

문9)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불필요	필요
(1) 전화를 통한 취업 정보 제공	①	②
(2) 전화를 통한 진로 상담	①	②
(3) 문자를 통한 취업 정보 제공	①	②
(4) 문자를 통한 기타 정보 안내	①	②

문10)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이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셨습니까?

문 항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	거의 높아지지 않았다	보통 이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 졌다
(1) 사회참여에 대한 자신감(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①	②	③	④	⑤
(2) 취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	①	②	③	④	⑤
(3)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께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다른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 ① 추천함
- ② 추천하지 않음

문12)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다른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추천하시거나, 추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II. 현재 상태

문13) 귀하는 지난 주(2022년 7월 25일~7월 31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다가?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13-1로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13-1로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문14로 이동

문13-1) (문1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지난 주에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였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습니까? (투잡, 쓰리잡 등 동시에 갖고 있는 일자리의 개수를 의미함)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

➡ 응답 후 문16로 이동



현재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4) (문13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지난 4주(2022년 7월 4일~7월 31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15로 이동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14-1로 이동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14-2로 이동

문14-1) (문14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가 지난 주(2022년 7월 25일~7월 31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16로 이동
-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15로 이동

문14-2) (문14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 주(2022년 7월 25일~7월 31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문 항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9)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0)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1)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2)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4)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5)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문14-2-1) (문14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번

문14-2-2) (문14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
- ③ 1년 -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 응답 후 문16로 이동

문15) (문14에서 ①,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 기간 [상세응답]
①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②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③ 1년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④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16로 이동

문16)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직장,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원, 독서실 등을 매일 다닌다면 ①에 해당 됩니다.
- 평소에는 직장 출퇴근, 학교 통학으로 외출을 하나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소 기준에 맞게 외출① 또는 ②에 해당 됩니다.

- | | |
|----------------------------------|--------------------|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 문17로 이동 |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 문16-1로 이동 |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

문16-1) **(문16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 | |
|-----------------|------------------|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

문16-2) **(문16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기타() |

문1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습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문18) 귀하는 다음과 같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문 항	전혀 느끼지 않는다	드물게 느낀다	가끔 느낀다	항상 느낀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문18-(4)에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문18-1로 이동, 그 외는 문19로 이동

문18-1) (문18-4)에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내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 응답 후 문19로 이동

문19) 주변 사람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20) 다음의 내용이 귀하를 얼마나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21) 본인의 진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 항	전혀 자신 없다	별로 자신 없다	어느 정도 자신 있다	꽤 자신 있다	매우 자신 있다
(1) 나는 원하는 직업이나 관련 있는 고용주나 회사, 혹은 기관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원하는 교육기관(학원, 대학, 전문교육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원하는 전공 또는 직업을 얻지 못할 경우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선택한 진로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다음의 문장을 잘 읽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2-1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22-2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22-3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22-4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았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22-5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가치 없다 ← 보통 →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IV. 사업개선방안

문23)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반대 한다	약간 반대 한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찬성 한다	매우 찬성 한다
(1) 참여기간이 더 길어져야 함(4주 → 16주)	①	②	③	④	⑤
(2) 개인이 참여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4주~16주)	①	②	③	④	⑤
(3) 참여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져야함(예. 매월 20만)	①	②	③	④	⑤
(4) 심리 상담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5)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더 강화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7) 취업 지원 서비스가 더 강화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8) 수료 후 일정기간 후 다시 참여가 가능해져야 함	①	②	③	④	⑤

문24) 마지막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연구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V. 참여자 정보

DQ0)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셨습니까? (_____)

DQ1)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	----------------------------

D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Q3)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사실혼의 경우에는 “①배우자 있음”으로 응답 해 주십시오.)

-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이혼
③ 결혼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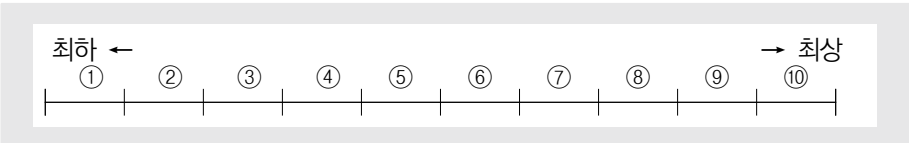
DQ4) 귀하는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음(응답거부)

DQ5)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DQ6)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Q7) 귀하와 귀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학위)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이다.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양적·질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비율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장기 니트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구직단념청년으로 정책대상화 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 이전 니트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단절되거나 고립되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사업 참여로 인해 밖으로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업 참여 이후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로 정서적 안정이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같은 심리 정서적 측면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사업 참여 후에는 비구직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비구직 니트 생활을 유지하는 청년들은 장기 니트화의 경로에 놓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사회와 단절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고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우리나라의 니트 청년 지원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이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다년도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과 동시에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트 청년에 대한 기본 상담에서부터 취업 지원까지의 단계적 지원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아직 초기 사업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원은 성인 이행기 어려움을 경험하는 니트 청년들에 대한 초기 지원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니트 청년을 지원하여 장기 니트를 예방하고 첫 출발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post-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participants in the 'Youth Challenge Support Project', which was conducted as a pilot project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2021. Through a survey and interview of participants of Youth Challenge Support Project in the 2021, the impact of this project on the participating young people was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d plans for improvement of the project were drawn.

The rate of youth NEETs in Korea remains relatively high, and they experienc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as well as socio-economic difficulties in the long-term NEETs state. The Youth Challenge Support Project is providing support to young people who are in a state of NEETs, who need support by targeting them to those who have given up on job-seeking.

Participants in the 2021 Youth Challenge Support Project responded that they tended to become disconnected from others or become isolated and lethargic as they were placed in a NEET state prior to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nd said that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provided an opportunity to go out and do something regularly. Overall,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the participants evaluated that th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was more helpful in

psycho-emotional aspects such as emotional stability and self-understanding.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there were positive changes such as getting out of the non-job-seeking NEET status and working or job-seeking activities. They are at high risk of being cut off from society, so additional services will need to be devised for them.

This study saw that the Youth Challenge Support Project has important significance as a youth NEETs support project in Korea and needs to be expanded. To this end, this project extends the support period with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prepares a multi-year support system, improves the quality of the program, provides diversified services, and provides step-by-step support from basic counseling to employment support for youth NEETs.

The Youth Challenge Support Project is still in its infancy, and there are many areas that need improvement. Nevertheless, such support has meaning as an initial support policy for youth NEET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transitioning to adulthood. In addition, there i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that Korea has supported youth NEETs in earnest to prevent long-term NEETs and support their first star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화·송현주
-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 ·박환보·최종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영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내실화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성·김세훈·이지혜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중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크숍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 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인 쇄 2022년 9월 23일

발 행 202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